

- 1인가구로서의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음(1점)’ ~ ‘매우 만족함(4점)’의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체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남. 특히 친구, 동료, 이웃과의 대인 관계 만족도가 타 영역에 비해 높았고, 경제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표 4-21] 1인가구 만족도 평균

(n=500)

구분		경제	근로	건강	주거	안전	여가/문화	가족	대인관계	전반적
성별	남자	2.43	2.53	2.65	2.60	2.70	2.50	2.63	2.78	2.66
	여자	2.43	2.43	2.59	2.62	2.56	2.59	2.66	2.81	2.6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43	2.55	2.52	2.68	2.73	2.77	2.88	2.96	2.80
	방학권	2.55	2.48	2.82	2.55	2.61	2.50	2.61	2.78	2.77
	창동권	2.38	2.45	2.56	2.56	2.54	2.55	2.58	2.72	2.58
	도봉권	2.39	2.44	2.65	2.69	2.70	2.24	2.48	2.74	2.49
연령대	20대	2.34	2.59	2.79	2.71	2.67	2.73	3.03	2.93	2.84
	30대	2.49	2.56	2.70	2.62	2.61	2.60	2.69	2.84	2.69
	40대	2.46	2.62	2.75	2.65	2.68	2.55	2.74	2.85	2.74
	50대	2.47	2.47	2.55	2.59	2.60	2.53	2.54	2.81	2.65
	60대	2.39	2.28	2.46	2.53	2.62	2.41	2.43	2.66	2.51
생애 주기별	청년	2.41	2.57	2.74	2.64	2.65	2.63	2.83	2.87	2.76
	중장년	2.47	2.48	2.56	2.60	2.61	2.51	2.53	2.79	2.63
	노년	2.35	2.15	2.45	2.55	2.69	2.35	2.45	2.56	2.44
은둔 수준	일반군	2.55	2.67	2.74	2.72	2.74	2.71	2.81	3.04	2.85
	위험군	2.32	2.31	2.52	2.51	2.53	2.39	2.49	2.58	2.49
전체		2.43	2.48	2.62	2.61	2.63	2.54	2.64	2.80	2.66

- 세부적으로, 경제상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50.4%(252명)으로 만족한다는 비율(49.6%, 248명)보다 많았음. 특징적으로, 20대의 경제상태 불만족 비율이 60.3%(4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생애주기에서도 청년의 불만족 비율이 55.8%로 가장 많았음. 또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제적 불만족 비율이 55.9%(147명)으로 일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근로 상태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2.8%(264명)로 불만족 비율보다 높았고, 특징적으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과 일반군의 근로상태 만족도의 차이가 약 20%p 이상 나타남.
- 건강상태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61.8%(309명)로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 영역에서도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과 일반군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4-22] 1인가구 만족도 : 경제상태

(n=5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	6.9	113	43.6	126	48.6	2	0.8	2.43
	여자	20	8.3	101	41.9	116	48.1	4	1.7	2.43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6.3	56	44.4	62	49.2	0	0.0	2.43
	방학권	5	4.5	42	37.8	62	55.9	2	1.8	2.55
	창동권	19	10.6	76	42.5	81	45.3	3	1.7	2.38
	도봉권	6	7.1	40	47.6	37	44.0	1	1.2	2.39
연령대	20대	5	6.8	39	53.4	28	38.4	1	1.4	2.34
	30대	5	5.1	45	45.9	43	43.9	5	5.1	2.49
	40대	3	3.6	39	46.4	42	50.0	0	0.0	2.46
	50대	10	9.3	37	34.3	61	56.5	0	0.0	2.47
	60대	15	10.9	54	39.4	68	49.6	0	0.0	2.39
생애 주기별	청년	12	5.8	103	50.0	85	41.3	6	2.9	2.41
	중장년	19	7.9	89	37.2	131	54.8	0	0.0	2.47
	노년	7	12.7	22	40.0	26	47.3	0	0.0	2.35
은둔 수준	일반군	5	2.1	100	42.2	128	54.0	4	1.7	2.55
	위험군	33	12.5	114	43.3	114	43.3	2	0.8	2.32
계		38	7.6	214	42.8	242	48.4	6	1.2	2.43

[표 4-23] 1인가구 만족도 : 근로상태

(n=5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7	6.6	96	37.1	138	53.3	8	3.1	2.53
	여자	22	9.1	101	41.9	111	46.1	7	2.9	2.43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6.3	42	33.3	75	59.5	1	0.8	2.55
	방학권	4	3.6	52	46.8	53	47.7	2	1.8	2.48
	창동권	14	7.8	75	41.9	85	47.5	5	2.8	2.45
	도봉권	13	15.5	28	33.3	36	42.9	7	8.3	2.44
연령대	20대	3	4.1	28	38.4	38	52.1	4	5.5	2.59
	30대	6	6.1	35	35.7	53	54.1	4	4.1	2.56
	40대	1	1.2	34	40.5	45	53.6	4	4.8	2.62
	50대	8	7.4	43	39.8	55	50.9	2	1.9	2.47
	60대	21	15.3	57	41.6	58	42.3	1	0.7	2.28
생애 주기별	청년	10	4.9	78	37.9	109	52.9	9	4.4	2.57
	중장년	15	6.3	99	41.4	120	50.2	5	2.1	2.48
	노년	14	25.5	20	36.4	20	36.4	1	1.8	2.15
은둔 수준	일반군	4	1.7	81	34.2	142	59.9	10	4.2	2.67
	위험군	35	13.3	116	44.1	107	40.7	5	1.9	2.31
계		39	7.8	197	39.4	249	49.8	15	3.0	2.48

[표 4-24] 1인가구 만족도 : 건강상태

(n=5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9	3.5	86	33.2	150	57.9	14	5.4	2.65
	여자	17	7.1	79	32.8	130	53.9	15	6.2	2.5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6.3	45	35.7	73	57.9	0	0.0	2.52
	방학권	3	2.7	26	23.4	70	63.1	12	10.8	2.82
	창동권	11	6.1	70	39.1	84	46.9	14	7.8	2.56
	도봉권	4	4.8	24	28.6	53	63.1	3	3.6	2.65
연령대	20대	4	5.5	13	17.8	50	68.5	6	8.2	2.79
	30대	2	2.0	35	35.7	51	52.0	10	10.2	2.70
	40대	2	2.4	22	26.2	55	65.5	5	6.0	2.75
	50대	7	6.5	40	37.0	56	51.9	5	4.6	2.55
	60대	11	8.0	55	40.1	68	49.6	3	2.2	2.46
생애 주기별	청년	7	3.4	59	28.6	120	58.3	20	9.7	2.74
	중장년	15	6.3	82	34.3	135	56.5	7	2.9	2.56
	노년	4	7.3	24	43.6	25	45.5	2	3.6	2.45
은둔 수준	일반군	6	2.5	65	27.4	151	63.7	15	6.3	2.74
	위험군	20	7.6	100	38.0	129	49.0	14	5.3	2.52
계		26	5.2	165	33.0	280	56.0	29	5.8	2.62

□ 주택 및 주거환경의 경우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이 61.6%(308명)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38.4%, 192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25] 1인가구 만족도 : 주택 및 주거환경

(n=5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2	4.6	88	34.0	151	58.3	8	3.1	2.60
	여자	9	3.7	83	34.4	139	57.7	10	4.1	2.6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	4.0	33	26.2	85	67.5	3	2.4	2.68
	방학권	6	5.4	41	36.9	61	55.0	3	2.7	2.55
	창동권	9	5.0	68	38.0	95	53.1	7	3.9	2.56
	도봉권	1	1.2	29	34.5	49	58.3	5	6.0	2.69
연령대	20대	1	1.4	24	32.9	43	58.9	5	6.8	2.71
	30대	4	4.1	33	33.7	57	58.2	4	4.1	2.62
	40대	1	1.2	28	33.3	54	64.3	1	1.2	2.65
	50대	2	1.9	44	40.7	58	53.7	4	3.7	2.59
	60대	13	9.5	42	30.7	78	56.9	4	2.9	2.53
생애 주기별	청년	6	2.9	72	35.0	118	57.3	10	4.9	2.64
	중장년	8	3.3	84	35.1	143	59.8	4	1.7	2.60
	노년	7	12.7	15	27.3	29	52.7	4	7.3	2.55
은둔 수준	일반군	8	3.4	64	27.0	151	63.7	14	5.9	2.72
	위험군	13	4.9	107	40.7	139	52.9	4	1.5	2.51
계		21	4.2	171	34.2	290	58.0	18	3.6	2.61

□ 안전보장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63.0%(315명)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37.0%, 185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특히, 쌍문권에 거주하는 구민의 만족한다는 응답이

73.0%로 가장 많았음.

[표 4-26] 1인가구 만족도 : 안전보장

(n=5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	1.5	74	28.6	177	68.3	4	1.5	2.70
	여자	9	3.7	98	40.7	124	51.5	10	4.1	2.5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	2.4	31	24.6	89	70.6	3	2.4	2.73
	방학권	4	3.6	37	33.3	68	61.3	2	1.8	2.61
	창동권	5	2.8	77	43.0	92	51.4	5	2.8	2.54
	도봉권	1	1.2	27	32.1	52	61.9	4	4.8	2.70
연령대	20대	2	2.7	20	27.4	51	69.9	0	0.0	2.67
	30대	3	3.1	35	35.7	57	58.2	3	3.1	2.61
	40대	1	1.2	31	36.9	46	54.8	6	7.1	2.68
	50대	4	3.7	37	34.3	65	60.2	2	1.9	2.60
	60대	3	2.2	49	35.8	82	59.9	3	2.2	2.62
생애 주기별	청년	6	2.9	65	31.6	131	63.6	4	1.9	2.65
	중장년	7	2.9	89	37.2	134	56.1	9	3.8	2.61
	노년	0	0.0	18	32.7	36	65.5	1	1.8	2.69
은둔 수준	일반군	3	1.3	64	27.0	161	67.9	9	3.8	2.74
	위험군	10	3.8	108	41.1	140	53.2	5	1.9	2.53
계		13	2.6	172	34.4	301	60.2	14	2.8	2.63

□ 여가 및 문화생활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5.8%(279명)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44.2%, 221명)에 비해 높게 나타남. 여가 및 문화생활 영역에서도 쌍문권에 거주하는 구민의 만족한다는 응답이 7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 4-27] 1인가구 만족도 : 여가 및 문화생활

(n=5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5	5.8	110	42.5	123	47.5	11	4.2	2.50
	여자	20	8.3	76	31.5	129	53.5	16	6.6	2.5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	4.0	28	22.2	84	66.7	9	7.1	2.77
	방학권	7	6.3	46	41.4	53	47.7	5	4.5	2.50
	창동권	13	7.3	65	36.3	91	50.8	10	5.6	2.55
	도봉권	10	11.9	47	56.0	24	28.6	3	3.6	2.24
연령대	20대	4	5.5	21	28.8	39	53.4	9	12.3	2.73
	30대	7	7.1	34	34.7	48	49.0	9	9.2	2.60
	40대	2	2.4	35	41.7	46	54.8	1	1.2	2.55
	50대	7	6.5	43	39.8	52	48.1	6	5.6	2.53
	60대	15	10.9	53	38.7	67	48.9	2	1.5	2.41
생애 주기별	청년	12	5.8	71	34.5	105	51.0	18	8.7	2.63
	중장년	15	6.3	94	39.3	122	51.0	8	3.3	2.51
	노년	8	14.5	21	38.2	25	45.5	1	1.8	2.35
은둔 수준	일반군	9	3.8	72	30.4	134	56.5	22	9.3	2.71
	위험군	26	9.9	114	43.3	118	44.9	5	1.9	2.39
계		35	7.0	186	37.2	252	50.4	27	5.4	2.54

□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및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남. 특히, 쌍문권에 거주하는 구민의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20대의 만족도가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또한 친구, 동료,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만족도의 경우 일반군과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만족 비율의 차이가 타 영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표 4-28] 1인가구 만족도 : 가족과의 관계

(n=5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4	5.4	86	33.2	141	54.4	18	6.9	2.63
	여자	11	4.6	80	33.2	130	53.9	20	8.3	2.6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	5.6	19	15.1	82	65.1	18	14.3	2.88
	방학권	2	1.8	42	37.8	64	57.7	3	2.7	2.61
	창동권	15	8.4	56	31.3	98	54.7	10	5.6	2.58
	도봉권	1	1.2	49	58.3	27	32.1	7	8.3	2.48
연령대	20대	1	1.4	9	12.3	50	68.5	13	17.8	3.03
	30대	5	5.1	28	28.6	57	58.2	8	8.2	2.69
	40대	1	1.2	29	34.5	45	53.6	9	10.7	2.74
	50대	4	3.7	45	41.7	56	51.9	3	2.8	2.54
	60대	14	10.2	55	40.1	63	46.0	5	3.6	2.43
생애 주기별	청년	7	3.4	47	22.8	126	61.2	26	12.6	2.83
	중장년	14	5.9	94	39.3	122	51.0	9	3.8	2.53
	노년	4	7.3	25	45.5	23	41.8	3	5.5	2.45
은둔 수준	일반군	1	0.4	71	30.0	137	57.8	28	11.8	2.81
	위험군	24	9.1	95	36.1	134	51.0	10	3.8	2.49
계		25	5.0	166	33.2	271	54.2	38	7.6	2.64

[표 4-29] 1인가구 만족도 : 친구·동료·이웃과의 관계

(n=5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	2.7	66	25.5	162	62.5	24	9.3	2.78
	여자	9	3.7	55	22.8	149	61.8	28	11.6	2.8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3.2	21	16.7	77	61.1	24	19.0	2.96
	방학권	3	2.7	27	24.3	72	64.9	9	8.1	2.78
	창동권	9	5.0	49	27.4	104	58.1	17	9.5	2.72
	도봉권	0	0.0	24	28.6	58	69.0	2	2.4	2.74
연령대	20대	4	5.5	9	12.3	48	65.8	12	16.4	2.93
	30대	4	4.1	21	21.4	60	61.2	13	13.3	2.84
	40대	2	2.4	15	17.9	61	72.6	6	7.1	2.85
	50대	1	0.9	27	25.0	72	66.7	8	7.4	2.81
	60대	5	3.6	49	35.8	70	51.1	13	9.5	2.66
생애 주기별	청년	8	3.9	38	18.4	133	64.6	27	13.1	2.87
	중장년	5	2.1	61	25.5	152	63.6	21	8.8	2.79
	노년	3	5.5	22	40.0	26	47.3	4	7.3	2.56
은둔 수준	일반군	3	1.3	28	11.8	163	68.8	43	18.1	3.04
	위험군	13	4.9	93	35.4	148	56.3	9	3.4	2.58
계		16	3.2	121	24.2	311	62.2	52	10.4	2.80

- 응답자의 과반 이상(67.8%, 339명)은 1인가구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적으로는 쌍문권과 방학권의 만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로는 20대의 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30] 1인가구 만족도 : 삶의 전반적 만족도

(n=500)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2	4.6	69	26.6	172	66.4	6	2.3	2.66
	여자	10	4.1	70	29.0	153	63.5	8	3.3	2.6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	4.0	23	18.3	90	71.4	8	6.3	2.80
	방학권	1	0.9	26	23.4	82	73.9	2	1.8	2.77
	창동권	11	6.1	57	31.8	107	59.8	4	2.2	2.58
	도봉권	5	6.0	33	39.3	46	54.8	0	0.0	2.49
연령대	20대	1	1.4	13	17.8	56	76.7	3	4.1	2.84
	30대	3	3.1	26	26.5	67	68.4	2	2.0	2.69
	40대	2	2.4	21	25.0	58	69.0	3	3.6	2.74
	50대	2	1.9	37	34.3	66	61.1	3	2.8	2.65
	60대	14	10.2	42	30.7	78	56.9	3	2.2	2.51
생애 주기별	청년	5	2.4	47	22.8	147	71.4	7	3.4	2.76
	중장년	10	4.2	73	30.5	151	63.2	5	2.1	2.63
	노년	7	12.7	19	34.5	27	49.1	2	3.6	2.44
은둔 수준	일반군	1	0.4	43	18.1	184	77.6	9	3.8	2.85
	위험군	21	8.0	96	36.5	141	53.6	5	1.9	2.49
계		22	4.4	139	27.8	325	65.0	14	2.8	2.66

- 응답자의 대부분(96.2%, 481명)은 1인가구로써 지역 만족도 역시 평균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민들의 지역 내 1인가구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됨.

[표 4-31] 타 지역 대비 도봉구 1인가구 인식

(n=500)

구분		살기 좋지 않음(1~3점)		보통(4~7점)		살기 좋음(8~10점)		평균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	1.9	197	76.1	57	22.0	6.49
	여자	14	5.8	177	73.4	50	20.7	6.3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3.2	104	82.5	18	14.3	6.00
	방학권	2	1.8	73	65.8	36	32.4	6.93
	창동권	8	4.5	135	75.4	36	20.1	6.63
	도봉권	5	6.0	62	73.8	17	20.2	6.06
연령대	20대	1	1.4	52	71.2	20	27.4	6.70
	30대	7	7.1	68	69.4	23	23.5	6.28
	40대	1	1.2	70	83.3	13	15.5	6.42
	50대	5	4.6	83	76.9	20	18.5	6.41
	60대	5	3.6	101	73.7	31	22.6	6.47
생애 주기별	청년	8	3.9	148	71.8	50	24.3	6.48
	중장년	8	3.3	186	77.8	45	18.8	6.46
	노년	3	5.5	40	72.7	12	21.8	6.24
은둔 수준	일반군	1	0.4	185	78.1	51	21.5	6.52
	위험군	18	6.8	189	71.9	56	21.3	6.37
계		19	3.8	374	74.8	107	21.4	6.44

다. 1인가구로서의 삶의 변화와 준비

-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비대면 활동 참여가 늘었고, 사람들과의 만남 및 연락의 감소,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건강 악화 등의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32]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n=500)

구분		비대면 활동 참여	스트 레스 증가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증가	무료함 증가	만남/ 연락 감소	변화 없음/ 편안함	주변관계 회복 불가능
성별	남자	2.85	2.17	2.15	2.24	1.98	2.34	2.10	2.15
	여자	2.80	2.23	2.28	2.34	2.17	2.34	2.19	2.1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78	2.16	2.22	2.29	1.97	2.21	2.26	2.04
	방학권	2.92	1.95	1.88	1.99	1.88	2.07	2.19	2.11
	창동권	2.87	2.25	2.33	2.30	2.31	2.46	2.32	2.21
	도봉권	2.68	2.46	2.40	2.64	1.95	2.63	1.54	2.38
연령대	20대	3.19	2.03	2.19	2.23	2.07	2.30	2.32	1.93
	30대	3.05	2.21	2.31	2.23	2.03	2.29	2.16	2.20
	40대	2.92	2.11	2.18	2.11	1.87	2.30	2.10	2.05
	50대	2.73	2.23	2.22	2.34	2.08	2.38	2.23	2.21
	60대	2.48	2.30	2.18	2.42	2.21	2.39	2.00	2.32
생애 주기별	청년	3.10	2.13	2.27	2.21	2.06	2.31	2.23	2.07
	중장년	2.67	2.21	2.14	2.30	2.03	2.33	2.14	2.23
	노년	2.45	2.36	2.35	2.53	2.27	2.49	1.82	2.31
은둔 수준	일반군	2.95	2.06	2.05	2.19	1.78	2.21	2.22	1.97
	위험군	2.71	2.32	2.37	2.37	2.33	2.46	2.08	2.35
전체		2.82	2.20	2.22	2.29	2.07	2.34	2.14	2.17

-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혼자 힘으로 비대면 활동(화상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비율이 73.6%(368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20대의 경우는 91.8%가 비대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청년 세대(20-40대)의 대부분(90.8%)이 비대면 활동에 참여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31.0%(155명)에 그쳤으나, 지역적으로는 도봉권의 우울 혹은 스트레스 증가에 대한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았고, 노년층의 절반 이상(50.9%)이 정서적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3]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혼자 힘으로 비대면 활동에 참여 가능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	1.5	58	22.4	171	66.0	26	10.0	2.85
	여자	6	2.5	64	26.6	143	59.3	28	11.6	2.8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	4.0	37	29.4	65	51.6	19	15.1	2.78
	방학권	2	1.8	22	19.8	70	63.1	17	15.3	2.92
	창동권	3	1.7	33	18.4	128	71.5	15	8.4	2.87
	도봉권	0	0.0	30	35.7	51	60.7	3	3.6	2.68
연령대	20대	1	1.4	5	6.8	46	63.0	21	28.8	3.19
	30대	1	1.0	9	9.2	72	73.5	16	16.3	3.05
	40대	1	1.2	12	14.3	64	76.2	7	8.3	2.92
	50대	3	2.8	30	27.8	68	63.0	7	6.5	2.73
	60대	4	2.9	66	48.2	64	46.7	3	2.2	2.48
생애 주기별	청년	2	1.0	17	8.3	145	70.4	42	20.4	3.10
	중장년	7	2.9	76	31.8	145	60.7	11	4.6	2.67
	노년	1	1.8	29	52.7	24	43.6	1	1.8	2.45
은둔 수준	일반군	1	0.4	57	24.1	132	55.7	47	19.8	2.95
	위험군	9	3.4	65	24.7	182	69.2	7	2.7	2.71
계		10	2.0	122	24.4	314	62.8	54	10.8	2.82

[표 4-34]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우울감과 스트레스 증가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6	13.9	151	58.3	65	25.1	7	2.7	2.17
	여자	34	14.1	124	51.5	77	32.0	6	2.5	2.23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2	9.5	84	66.7	28	22.2	2	1.6	2.16
	방학권	33	29.7	54	48.6	21	18.9	3	2.7	1.95
	창동권	14	7.8	112	62.6	47	26.3	6	3.4	2.25
	도봉권	11	13.1	25	29.8	46	54.8	2	2.4	2.46
연령대	20대	12	16.4	48	65.8	12	16.4	1	1.4	2.03
	30대	14	14.3	51	52.0	31	31.6	2	2.0	2.21
	40대	12	14.3	54	64.3	15	17.9	3	3.6	2.11
	50대	15	13.9	56	51.9	34	31.5	3	2.8	2.23
	60대	17	12.4	66	48.2	50	36.5	4	2.9	2.30
생애 주기별	청년	29	14.1	125	60.7	48	23.3	4	1.9	2.13
	중장년	32	13.4	132	55.2	67	28.0	8	3.3	2.21
	노년	9	16.4	18	32.7	27	49.1	1	1.8	2.36
은둔 수준	일반군	39	16.5	145	61.2	52	21.9	1	0.4	2.06
	위험군	31	11.8	130	49.4	90	34.2	12	4.6	2.32
계		70	14.0	275	55.0	142	28.4	13	2.6	2.20

□ 건강 악화의 경우는 36.0%(180명)이 코로나19 이후 건강 악화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 영역 역시 지역적으로는 도봉권이 48.8%, 생애주기적으로는 노년층의 절반 이상(50.9%)이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정서적 영역에서의 지역과 대상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35]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체중 증가 등 건강 악화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9	18.9	127	49.0	77	29.7	6	2.3	2.15
	여자	43	17.8	101	41.9	83	34.4	14	5.8	2.2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3	10.3	75	59.5	35	27.8	3	2.4	2.22
	방학권	41	36.9	45	40.5	22	19.8	3	2.7	1.88
	창동권	29	16.2	74	41.3	64	35.8	12	6.7	2.33
	도봉권	9	10.7	34	40.5	39	46.4	2	2.4	2.40
연령대	20대	15	20.5	35	47.9	17	23.3	6	8.2	2.19
	30대	17	17.3	40	40.8	35	35.7	6	6.1	2.31
	40대	15	17.9	41	48.8	26	31.0	2	2.4	2.18
	50대	19	17.6	48	44.4	39	36.1	2	1.9	2.22
	60대	26	19.0	64	46.7	43	31.4	4	2.9	2.18
생애 주기별	청년	36	17.5	92	44.7	65	31.6	13	6.3	2.27
	중장년	45	18.8	120	50.2	69	28.9	5	2.1	2.14
	노년	11	20.0	16	29.1	26	47.3	2	3.6	2.35
은둔 수준	일반군	52	21.9	127	53.6	52	21.9	6	2.5	2.05
	위험군	40	15.2	101	38.4	108	41.1	14	5.3	2.37
계		92	18.4	228	45.6	160	32.0	20	4.0	2.22

□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38.0%(190명)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영역 역시 지역적으로는 도봉권이 66.7%, 생애주기적으로는 노년층의 절반 이상(54.5%)이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6]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4	17.0	120	46.3	84	32.4	11	4.2	2.24
	여자	27	11.2	119	49.4	82	34.0	13	5.4	2.3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0	7.9	73	57.9	40	31.7	3	2.4	2.29
	방학권	29	26.1	56	50.5	24	21.6	2	1.8	1.99
	창동권	23	12.8	91	50.8	53	29.6	12	6.7	2.30
	도봉권	9	10.7	19	22.6	49	58.3	7	8.3	2.64
연령대	20대	8	11.0	43	58.9	19	26.0	3	4.1	2.23
	30대	18	18.4	42	42.9	35	35.7	3	3.1	2.23
	40대	13	15.5	50	59.5	20	23.8	1	1.2	2.11
	50대	15	13.9	47	43.5	40	37.0	6	5.6	2.34
	60대	17	12.4	57	41.6	52	38.0	11	8.0	2.42
생애 주기별	청년	32	15.5	106	51.5	61	29.6	7	3.4	2.21
	중장년	33	13.8	114	47.7	80	33.5	12	5.0	2.30
	노년	6	10.9	19	34.5	25	45.5	5	9.1	2.53
은둔 수준	일반군	32	13.5	131	55.3	71	30.0	3	1.3	2.19
	위험군	39	14.8	108	41.1	95	36.1	21	8.0	2.37
계		71	14.2	239	47.8	166	33.2	24	4.8	2.29

□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게 되어 할 일이 없고 무료하다는 응답은 27.2%(136명)에 그쳤으나, 사람들과의 만남, 연락이 줄고 소홀해졌다는 응답은 43.6%(218명)으로 나타남.

[표 4-37]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할 일 없고 무료함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8	30.1	117	45.2	55	21.2	9	3.5	1.98
	여자	51	21.2	118	49.0	53	22.0	19	7.9	2.1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3	26.2	68	54.0	21	16.7	4	3.2	1.97
	방학권	31	27.9	63	56.8	16	14.4	1	0.9	1.88
	창동권	26	14.5	85	47.5	54	30.2	14	7.8	2.31
	도봉권	39	46.4	19	22.6	17	20.2	9	10.7	1.95
연령대	20대	19	26.0	34	46.6	16	21.9	4	5.5	2.07
	30대	26	26.5	46	46.9	23	23.5	3	3.1	2.03
	40대	27	32.1	44	52.4	10	11.9	3	3.6	1.87
	50대	26	24.1	52	48.1	25	23.1	5	4.6	2.08
	60대	31	22.6	59	43.1	34	24.8	13	9.5	2.21
생애 주기별	청년	49	23.8	103	50.0	46	22.3	8	3.9	2.06
	중장년	66	27.6	113	47.3	47	19.7	13	5.4	2.03
	노년	14	25.5	19	34.5	15	27.3	7	12.7	2.27
은둔 수준	일반군	85	35.9	121	51.1	28	11.8	3	1.3	1.78
	위험군	44	16.7	114	43.3	80	30.4	25	9.5	2.33
계		129	25.8	235	47.0	108	21.6	28	5.6	2.07

[표 4-38]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사람들과의 만남, 연락이 줄고 소홀해짐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3	12.7	112	43.2	106	40.9	8	3.1	2.34
	여자	36	14.9	101	41.9	91	37.8	13	5.4	2.3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2	9.5	81	64.3	27	21.4	6	4.8	2.21
	방학권	24	21.6	56	50.5	30	27.0	1	0.9	2.07
	창동권	21	11.7	63	35.2	87	48.6	8	4.5	2.46
	도봉권	12	14.3	13	15.5	53	63.1	6	7.1	2.63
연령대	20대	10	13.7	33	45.2	28	38.4	2	2.7	2.30
	30대	20	20.4	35	35.7	38	38.8	5	5.1	2.29
	40대	12	14.3	38	45.2	31	36.9	3	3.6	2.30
	50대	11	10.2	48	44.4	46	42.6	3	2.8	2.38
	60대	16	11.7	59	43.1	54	39.4	8	5.8	2.39
생애 주기별	청년	35	17.0	81	39.3	82	39.8	8	3.9	2.31
	중장년	27	11.3	114	47.7	89	37.2	9	3.8	2.33
	노년	7	12.7	18	32.7	26	47.3	4	7.3	2.49
은둔 수준	일반군	37	15.6	119	50.2	76	32.1	5	2.1	2.21
	위험군	32	12.2	94	35.7	121	46.0	16	6.1	2.46
계		69	13.8	213	42.6	197	39.4	21	4.2	2.34

□ 또한 전과 비교하여 생활이 크게 변화한 부분이 없거나 오히려 더 편해졌다는 응답은 32.6%(163명),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이 30.4%(152명)에 그쳐,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으나 향후 회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39]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그 전과 비교하여 생활이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거나 오히려 더 편해짐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7	22.0	121	46.7	78	30.1	3	1.2	2.10
	여자	42	17.4	117	48.5	77	32.0	5	2.1	2.1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5	11.9	64	50.8	46	36.5	1	0.8	2.26
	방학권	10	9.0	72	64.9	27	24.3	2	1.8	2.19
	창동권	20	11.2	86	48.0	69	38.5	4	2.2	2.32
	도봉권	54	64.3	16	19.0	13	15.5	1	1.2	1.54
연령대	20대	10	13.7	34	46.6	25	34.2	4	5.5	2.32
	30대	19	19.4	47	48.0	29	29.6	3	3.1	2.16
	40대	19	22.6	38	45.2	27	32.1	0	0.0	2.10
	50대	16	14.8	52	48.1	39	36.1	1	0.9	2.23
	60대	35	25.5	67	48.9	35	25.5	0	0.0	2.00
생애 주기별	청년	33	16.0	99	48.1	67	32.5	7	3.4	2.23
	중장년	45	18.8	116	48.5	77	32.2	1	0.4	2.14
	노년	21	38.2	23	41.8	11	20.0	0	0.0	1.82
은둔 수준	일반군	39	16.5	113	47.7	80	33.8	5	2.1	2.22
	위험군	60	22.8	125	47.5	75	28.5	3	1.1	2.08
계		99	19.8	238	47.6	155	31.0	8	1.6	2.14

[표 4-40]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앞으로도 주변인들과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음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0	15.4	144	55.6	70	27.0	5	1.9	2.15
	여자	34	14.1	130	53.9	74	30.7	3	1.2	2.1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7	13.5	89	70.6	18	14.3	2	1.6	2.04
	방학권	18	16.2	66	59.5	24	21.6	3	2.7	2.11
	창동권	26	14.5	91	50.8	61	34.1	1	0.6	2.21
	도봉권	13	15.5	28	33.3	41	48.8	2	2.4	2.38
연령대	20대	14	19.2	50	68.5	9	12.3	0	0.0	1.93
	30대	16	16.3	47	48.0	34	34.7	1	1.0	2.20
	40대	18	21.4	45	53.6	20	23.8	1	1.2	2.05
	50대	14	13.0	60	55.6	31	28.7	3	2.8	2.21
	60대	12	8.8	72	52.6	50	36.5	3	2.2	2.32
생애 주기별	청년	39	18.9	115	55.8	51	24.8	1	0.5	2.07
	중장년	30	12.6	129	54.0	75	31.4	5	2.1	2.23
	노년	5	9.1	30	54.5	18	32.7	2	3.6	2.31
은둔 수준	일반군	49	20.7	147	62.0	39	16.5	2	0.8	1.97
	위험군	25	9.5	127	48.3	105	39.9	6	2.3	2.35
계		74	14.8	274	54.8	144	28.8	8	1.6	2.17

- 고독사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은 고독사를 중요한 사회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1] 고독사에 대한 생각

(n=500)

구분		중요한 사회 이슈	개인의 문제	무관심 때문에 발생	고독사 걱정 경험	고독사 예방 지원 필요성
성별	남자	3.12	2.17	2.54	2.58	2.87
	여자	3.10	2.17	2.59	2.66	3.0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19	2.20	2.73	3.05	3.18
	방학권	2.95	1.91	2.32	2.21	2.70
	창동권	3.11	2.52	2.56	2.63	2.79
	도봉권	3.19	1.75	2.64	2.48	3.20
연령대	20대	3.07	2.18	2.58	2.56	2.93
	30대	3.04	2.11	2.40	2.41	2.88
	40대	3.11	2.15	2.70	2.61	2.85
	50대	3.12	2.13	2.55	2.74	2.94
	60대	3.17	2.26	2.61	2.69	3.04
생애 주기별	청년	3.08	2.16	2.52	2.55	2.91
	중장년	3.09	2.21	2.55	2.62	2.89
	노년	3.29	2.09	2.78	2.85	3.27
은둔 수준	일반군	3.22	2.21	2.68	2.76	3.16
	위험군	3.00	2.14	2.47	2.49	2.74
전체		3.11	2.17	2.57	2.61	2.94

-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81.0%(405명)는 중요한 사회 이슈로서 고독사를 인식하고 있었음.

[표 4-42] 고독사 : 고독사 문제는 1인가구에게 중요한 사회 이슈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0	0.0	44	17.0	141	54.4	74	28.6	3.12
	여자	1	0.4	50	20.7	114	47.3	76	31.5	3.1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0	0.0	28	22.2	46	36.5	52	41.3	3.19
	방학권	1	0.9	26	23.4	61	55.0	23	20.7	2.95
	창동권	0	0.0	33	18.4	94	52.5	52	29.1	3.11
	도봉권	0	0.0	7	8.3	54	64.3	23	27.4	3.19
연령대	20대	0	0.0	16	21.9	36	49.3	21	28.8	3.07
	30대	1	1.0	17	17.3	57	58.2	23	23.5	3.04
	40대	0	0.0	16	19.0	43	51.2	25	29.8	3.11
	50대	0	0.0	20	18.5	55	50.9	33	30.6	3.12
	60대	0	0.0	25	18.2	64	46.7	48	35.0	3.17
생애 주기별	청년	1	0.5	38	18.4	111	53.9	56	27.2	3.08
	중장년	0	0.0	49	20.5	119	49.8	71	29.7	3.09
	노년	0	0.0	7	12.7	25	45.5	23	41.8	3.29
은둔 수준	일반군	0	0.0	25	10.5	134	56.5	78	32.9	3.22
	위험군	1	0.4	69	26.2	121	46.0	72	27.4	3.00
계		1	0.2	94	18.8	255	51.0	150	30.0	3.11

□ 또한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응답(67.6%, 338명)이 많았고, 주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응답(52.0%, 260명)이 많았음.

[표 4-43] 고독사 :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이다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9	22.8	115	44.4	66	25.5	19	7.3	2.17
	여자	53	22.0	111	46.1	59	24.5	18	7.5	2.1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3	26.2	51	40.5	26	20.6	16	12.7	2.20
	방학권	30	27.0	65	58.6	12	10.8	4	3.6	1.91
	창동권	15	8.4	72	40.2	76	42.5	16	8.9	2.52
	도봉권	34	40.5	38	45.2	11	13.1	1	1.2	1.75
연령대	20대	16	21.9	32	43.8	21	28.8	4	5.5	2.18
	30대	22	22.4	51	52.0	17	17.3	8	8.2	2.11
	40대	19	22.6	40	47.6	18	21.4	7	8.3	2.15
	50대	26	24.1	47	43.5	30	27.8	5	4.6	2.13
	60대	29	21.2	56	40.9	39	28.5	13	9.5	2.26
생애 주기별	청년	43	20.9	102	49.5	46	22.3	15	7.3	2.16
	중장년	52	21.8	102	42.7	69	28.9	16	6.7	2.21
	노년	17	30.9	22	40.0	10	18.2	6	10.9	2.09
은둔 수준	일반군	41	17.3	128	54.0	46	19.4	22	9.3	2.21
	위험군	71	27.0	98	37.3	79	30.0	15	5.7	2.14
계		112	22.4	226	45.2	125	25.0	37	7.4	2.17

[표 4-44] 고독사 : 고독사는 주변 이웃의 무관심 때문에 발생한다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7	6.6	113	43.6	100	38.6	29	11.2	2.54
	여자	19	7.9	91	37.8	101	41.9	30	12.4	2.5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	4.0	55	43.7	35	27.8	31	24.6	2.73
	방학권	12	10.8	54	48.6	42	37.8	3	2.7	2.32
	창동권	12	6.7	68	38.0	85	47.5	14	7.8	2.56
	도봉권	7	8.3	27	32.1	39	46.4	11	13.1	2.64
연령대	20대	4	5.5	30	41.1	32	43.8	7	9.6	2.58
	30대	11	11.2	46	46.9	32	32.7	9	9.2	2.40
	40대	1	1.2	34	40.5	38	45.2	11	13.1	2.70
	50대	7	6.5	45	41.7	46	42.6	10	9.3	2.55
	60대	13	9.5	49	35.8	53	38.7	22	16.1	2.61
생애 주기별	청년	16	7.8	88	42.7	80	38.8	22	10.7	2.52
	중장년	16	6.7	100	41.8	98	41.0	25	10.5	2.55
	노년	4	7.3	16	29.1	23	41.8	12	21.8	2.78
은둔 수준	일반군	17	7.2	85	35.9	93	39.2	42	17.7	2.68
	위험군	19	7.2	119	45.2	108	41.1	17	6.5	2.47
계		36	7.2	204	40.8	201	40.2	59	11.8	2.57

- 이와 함께,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54.6%, 273명)은 고독사 관련하여 본인의 죽음을 걱정한 적이 있으며, 대부분(72.4%, 362명)은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고독사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 욕구를 예측할 수 있음.

[표 4-45] 고독사 : 고독사 관련 나의 죽음에 대해 걱정한 적 있다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2	12.4	89	34.4	95	36.7	43	16.6	2.58
	여자	28	11.6	78	32.4	84	34.9	51	21.2	2.6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2	9.5	26	20.6	32	25.4	56	44.4	3.05
	방학권	18	16.2	55	49.5	35	31.5	3	2.7	2.21
	창동권	11	6.1	66	36.9	81	45.3	21	11.7	2.63
	도봉권	19	22.6	20	23.8	31	36.9	14	16.7	2.48
연령대	20대	9	12.3	29	39.7	20	27.4	15	20.5	2.56
	30대	16	16.3	36	36.7	36	36.7	10	10.2	2.41
	40대	11	13.1	28	33.3	28	33.3	17	20.2	2.61
	50대	5	4.6	38	35.2	45	41.7	20	18.5	2.74
	60대	19	13.9	36	26.3	50	36.5	32	23.4	2.69
생애 주기별	청년	26	12.6	75	36.4	71	34.5	34	16.5	2.55
	중장년	25	10.5	83	34.7	90	37.7	41	17.2	2.62
	노년	9	16.4	9	16.4	18	32.7	19	34.5	2.85
은둔 수준	일반군	30	12.7	63	26.6	79	33.3	65	27.4	2.76
	위험군	30	11.4	104	39.5	100	38.0	29	11.0	2.49
계		60	12.0	167	33.4	179	35.8	94	18.8	2.61

[표 4-46] 고독사 :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n=5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2	8.5	57	22.0	112	43.2	68	26.3	2.87
	여자	14	5.8	45	18.7	107	44.4	75	31.1	3.0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0	7.9	20	15.9	33	26.2	63	50.0	3.18
	방학권	10	9.0	26	23.4	62	55.9	13	11.7	2.70
	창동권	9	5.0	49	27.4	92	51.4	29	16.2	2.79
	도봉권	7	8.3	7	8.3	32	38.1	38	45.2	3.20
연령대	20대	5	6.8	15	20.5	33	45.2	20	27.4	2.93
	30대	8	8.2	18	18.4	50	51.0	22	22.4	2.88
	40대	11	13.1	18	21.4	28	33.3	27	32.1	2.85
	50대	5	4.6	22	20.4	55	50.9	26	24.1	2.94
	60대	7	5.1	29	21.2	53	38.7	48	35.0	3.04
생애 주기별	청년	17	8.3	39	18.9	96	46.6	54	26.2	2.91
	중장년	16	6.7	56	23.4	106	44.4	61	25.5	2.89
	노년	3	5.5	7	12.7	17	30.9	28	50.9	3.27
은둔 수준	일반군	10	4.2	34	14.3	101	42.6	92	38.8	3.16
	위험군	26	9.9	68	25.9	118	44.9	51	19.4	2.74
계		36	7.2	102	20.4	219	43.8	143	28.6	2.94

- 위급상황 시 대비를 묻는 항목에서는 가족, 친지, 친구 등의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응답이 44.4%(22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웃, 공공기관 관계자 등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했다는 응답이 19.8%(99명)로 나타남. 한편, 응답자들은 문제 상황 시 사적 자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준비한 것이 없다는 응답 역시 18.6%(93명)으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남.

[표 4-47] 위급 상황 시 대비책

(n=500)

구분		주위 사람과 지속적 연락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		1인가구 안심돌봄 서비스 이용		안전장치 설치		준비한 것이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06	40.9	52	20.1	39	15.1	10	3.9	52	20.1
	여자	116	48.1	47	19.5	24	10.0	13	5.4	41	17.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5	67.5	19	15.1	5	4.0	1	0.8	16	12.7
	방학권	52	46.8	38	34.2	6	5.4	1	0.9	14	12.6
	창동권	53	29.6	41	22.9	46	25.7	6	3.4	33	18.4
	도봉권	32	38.1	1	1.2	6	7.1	15	17.9	30	35.7
연령대	20대	43	58.9	10	13.7	6	8.2	1	1.4	13	17.8
	30대	46	46.9	17	17.3	8	8.2	3	3.1	24	24.5
	40대	38	45.2	14	16.7	15	17.9	5	6.0	12	14.3
	50대	45	41.7	22	20.4	11	10.2	4	3.7	26	24.1
	60대	50	36.5	36	26.3	23	16.8	10	7.3	18	13.1
생애 주기별	청년	104	50.5	34	16.5	21	10.2	5	2.4	42	20.4
	중장년	101	42.3	57	23.8	29	12.1	9	3.8	43	18.0
	노년	17	30.9	8	14.5	13	23.6	9	16.4	8	14.5
은둔 수준	일반군	136	57.4	36	15.2	17	7.2	8	3.4	40	16.9
	위험군	86	32.7	63	24.0	46	17.5	15	5.7	53	20.2
계		222	44.4	99	19.8	63	12.6	23	4.6	93	18.6

- 미래 노후에 대하여 ‘전혀 준비하지 않음(1점)’ ~ ‘매우 잘 준비함(4점)’의 4점 척도로 살펴봄.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대한 준비 수준이 높았고, 다음으로 보험, 저축 등 미래(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하기 위한 자기계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다고 응답함.

[표 4-48] 미래(노후) 준비 실행 정도

(n=500)

구분		전반적 준비	경제적 준비	인간관계 유지	자기계발	여가생활 대비	체력 및 정서관리
성별	남자	2.37	2.45	2.64	2.50	2.28	2.47
	여자	2.42	2.56	2.77	2.50	2.26	2.4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36	2.48	2.75	2.41	2.24	2.47
	방학권	2.51	2.68	2.68	2.58	2.32	2.46
	창동권	2.38	2.44	2.70	2.49	2.35	2.43
	도봉권	2.32	2.43	2.67	2.55	2.07	2.48
연령대	20대	2.18	2.34	2.81	2.62	2.22	2.47
	30대	2.36	2.49	2.72	2.48	2.22	2.41
	40대	2.44	2.79	2.73	2.57	2.37	2.54
	50대	2.53	2.62	2.71	2.54	2.39	2.44
	60대	2.40	2.33	2.61	2.38	2.17	2.44
생애 주기별	청년	2.30	2.48	2.76	2.56	2.24	2.45
	중장년	2.49	2.56	2.69	2.51	2.33	2.46
	노년	2.33	2.33	2.53	2.22	2.11	2.44
은둔 수준	일반군	2.53	2.70	2.96	2.66	2.39	2.59
	위험군	2.27	2.32	2.47	2.35	2.16	2.33
전체		2.39	2.50	2.70	2.50	2.27	2.45

-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55.6%, 278명)은 보험, 저축 등 미래(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특히, 40대의 경우는 76.2%가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제적 준비가 4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냄.

[표 4-49] 미래 노후준비 : 경제적 준비

(n=500)

구분		전혀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고 있음		매우 잘 준비하고 있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5	13.5	88	34.0	121	46.7	15	5.8	2.45
	여자	21	8.7	78	32.4	128	53.1	14	5.8	2.5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5	11.9	36	28.6	74	58.7	1	0.8	2.48
	방학권	7	6.3	38	34.2	49	44.1	17	15.3	2.68
	창동권	20	11.2	71	39.7	78	43.6	10	5.6	2.44
	도봉권	14	16.7	21	25.0	48	57.1	1	1.2	2.43
연령대	20대	10	13.7	29	39.7	33	45.2	1	1.4	2.34
	30대	10	10.2	35	35.7	48	49.0	5	5.1	2.49
	40대	5	6.0	15	17.9	57	67.9	7	8.3	2.79
	50대	5	4.6	39	36.1	56	51.9	8	7.4	2.62
	60대	26	19.0	48	35.0	55	40.1	8	5.8	2.33
생애 주기별	청년	23	11.2	70	34.0	104	50.5	9	4.4	2.48
	중장년	20	8.4	82	34.3	120	50.2	17	7.1	2.56
	노년	13	23.6	14	25.5	25	45.5	3	5.5	2.33
은둔 수준	일반군	16	6.8	56	23.6	148	62.4	17	7.2	2.70
	위험군	40	15.2	110	41.8	101	38.4	12	4.6	2.32
계		56	11.2	166	33.2	249	49.8	29	5.8	2.50

-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68.0%(340명)가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함. 다만,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준비 정도를 보임.

[표 4-50] 미래 노후준비 : 원만한 인간관계 준비

(n=500)

구분		전혀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고 있음		매우 잘 준비하고 있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9	7.3	76	29.3	144	55.6	20	7.7	2.64
	여자	11	4.6	54	22.4	155	64.3	21	8.7	2.7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6	4.8	29	23.0	82	65.1	9	7.1	2.75
	방학권	7	6.3	31	27.9	63	56.8	10	9.0	2.68
	창동권	12	6.7	45	25.1	107	59.8	15	8.4	2.70
	도봉권	5	6.0	25	29.8	47	56.0	7	8.3	2.67
연령대	20대	5	6.8	14	19.2	44	60.3	10	13.7	2.81
	30대	8	8.2	18	18.4	65	66.3	7	7.1	2.72
	40대	3	3.6	27	32.1	44	52.4	10	11.9	2.73
	50대	3	2.8	28	25.9	74	68.5	3	2.8	2.71
	60대	11	8.0	43	31.4	72	52.6	11	8.0	2.61
생애 주기별	청년	14	6.8	42	20.4	129	62.6	21	10.2	2.76
	중장년	10	4.2	70	29.3	143	59.8	16	6.7	2.69
	노년	6	10.9	18	32.7	27	49.1	4	7.3	2.53
은둔 수준	일반군	4	1.7	33	13.9	168	70.9	32	13.5	2.96
	위험군	26	9.9	97	36.9	131	49.8	9	3.4	2.47
계		30	6.0	130	26.0	299	59.8	41	8.2	2.70

- 미래(노후)를 위한 자기계발 역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53.4%(267명)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46.6%, 233명)보다 많았음.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력 및 정서관리에 있어서도 준비한다는 응답(52.0%, 260명)이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48.0%, 240명)보다 많았음.
- 한편, 퇴직 이후의 여가생활을 위한 대비의 경우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316명)로 타 영역에 비해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7.3%로 가장 높았음.

[표 4-51] 미래 노후준비 : 자기계발

(n=500)

구분		전혀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고 있음		매우 잘 준비하고 있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7	10.4	93	35.9	121	46.7	18	6.9	2.50
	여자	14	5.8	99	41.1	122	50.6	6	2.5	2.5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1	8.7	54	42.9	59	46.8	2	1.6	2.41
	방학권	4	3.6	42	37.8	62	55.9	3	2.7	2.58
	창동권	19	10.6	67	37.4	79	44.1	14	7.8	2.49
	도봉권	7	8.3	29	34.5	43	51.2	5	6.0	2.55
연령대	20대	5	6.8	23	31.5	40	54.8	5	6.8	2.62
	30대	9	9.2	39	39.8	44	44.9	6	6.1	2.48
	40대	9	10.7	22	26.2	49	58.3	4	4.8	2.57
	50대	3	2.8	48	44.4	53	49.1	4	3.7	2.54
	60대	15	10.9	60	43.8	57	41.6	5	3.6	2.38
생애 주기별	청년	17	8.3	72	35.0	102	49.5	15	7.3	2.56
	중장년	14	5.9	96	40.2	121	50.6	8	3.3	2.51
	노년	10	18.2	24	43.6	20	36.4	1	1.8	2.22
은둔 수준	일반군	5	2.1	81	34.2	140	59.1	11	4.6	2.66
	위험군	36	13.7	111	42.2	103	39.2	13	4.9	2.35
계		41	8.2	192	38.4	243	48.6	24	4.8	2.50

[표 4-52] 미래 노후준비 : 퇴직 이후 여가생활 준비

(n=500)

구분		전혀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고 있음		매우 잘 준비하고 있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9	11.2	134	51.7	91	35.1	5	1.9	2.28
	여자	33	13.7	120	49.8	81	33.6	7	2.9	2.2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1	8.7	76	60.3	37	29.4	2	1.6	2.24
	방학권	11	9.9	57	51.4	39	35.1	4	3.6	2.32
	창동권	19	10.6	85	47.5	69	38.5	6	3.4	2.35
	도봉권	21	25.0	36	42.9	27	32.1	0	0.0	2.07
연령대	20대	10	13.7	41	56.2	18	24.7	4	5.5	2.22
	30대	13	13.3	53	54.1	29	29.6	3	3.1	2.22
	40대	7	8.3	41	48.8	34	40.5	2	2.4	2.37
	50대	7	6.5	53	49.1	47	43.5	1	0.9	2.39
	60대	25	18.2	66	48.2	44	32.1	2	1.5	2.17
생애 주기별	청년	26	12.6	112	54.4	60	29.1	8	3.9	2.24
	중장년	24	10.0	117	49.0	94	39.3	4	1.7	2.33
	노년	12	21.8	25	45.5	18	32.7	0	0.0	2.11
은둔 수준	일반군	13	5.5	126	53.2	91	38.4	7	3.0	2.39
	위험군	49	18.6	128	48.7	81	30.8	5	1.9	2.16
계		62	12.4	254	50.8	172	34.4	12	2.4	2.27

[표 4-53] 미래 노후준비 : 체력 및 정서관리

(n=500)

구분		전혀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지 않음		준비하고 있음		매우 잘 준비하고 있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2	8.5	98	37.8	134	51.7	5	1.9	2.47
	여자	21	8.7	99	41.1	116	48.1	5	2.1	2.4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1	8.7	46	36.5	68	54.0	1	0.8	2.47
	방학권	9	8.1	48	43.2	48	43.2	6	5.4	2.46
	창동권	16	8.9	73	40.8	87	48.6	3	1.7	2.43
	도봉권	7	8.3	30	35.7	47	56.0	0	0.0	2.48
연령대	20대	7	9.6	27	37.0	37	50.7	2	2.7	2.47
	30대	12	12.2	36	36.7	48	49.0	2	2.0	2.41
	40대	1	1.2	40	47.6	40	47.6	3	3.6	2.54
	50대	9	8.3	45	41.7	51	47.2	3	2.8	2.44
	60대	14	10.2	49	35.8	74	54.0	0	0.0	2.44
생애 주기별	청년	20	9.7	80	38.8	100	48.5	6	2.9	2.45
	중장년	17	7.1	98	41.0	120	50.2	4	1.7	2.46
	노년	6	10.9	19	34.5	30	54.5	0	0.0	2.44
은둔 수준	일반군	13	5.5	77	32.5	141	59.5	6	2.5	2.59
	위험군	30	11.4	120	45.6	109	41.4	4	1.5	2.33
계		43	8.6	197	39.4	250	50.0	10	2.0	2.45

□ 위와 같은 미래(노후)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44.6%(22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25.0%(125명), 특별히 노후 준비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1.0%(5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4] 미래 노후준비의 어려움

(n=500)

구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특별히 노후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보장해줄 것을 기대해서		노후준비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서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14	44.0	57	22.0	32	12.4	26	10.0	18	6.9	11	4.2	1	0.4
	여자	109	45.2	68	28.2	23	9.5	18	7.5	16	6.6	6	2.5	1	0.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9	38.9	45	35.7	11	8.7	14	11.1	7	5.6	0	0.0	0	0.0
	방학권	45	40.5	24	21.6	16	14.4	17	15.3	6	5.4	2	1.8	1	0.9
	창동권	87	48.6	48	26.8	18	10.1	8	4.5	16	8.9	2	1.1	0	0.0
	도봉권	42	50.0	8	9.5	10	11.9	5	6.0	5	6.0	13	15.5	1	1.2
연령대	20대	27	37.0	29	39.7	3	4.1	2	2.7	10	13.7	2	2.7	0	0.0
	30대	41	41.8	24	24.5	8	8.2	9	9.2	8	8.2	8	8.2	0	0.0
	40대	44	52.4	24	28.6	5	6.0	2	2.4	4	4.8	5	6.0	0	0.0
	50대	46	42.6	22	20.4	18	16.7	13	12.0	7	6.5	1	0.9	1	0.9
	60대	65	47.4	26	19.0	21	15.3	18	13.1	5	3.6	1	0.7	1	0.7
	청년	91	44.2	61	29.6	12	5.8	11	5.3	21	10.2	10	4.9	0	0.0
생애 주기별	중장년	101	42.3	56	23.4	37	15.5	26	10.9	10	4.2	7	2.9	2	0.8
	노년	31	56.4	8	14.5	6	10.9	7	12.7	3	5.5	0	0.0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86	36.3	70	29.5	32	13.5	23	9.7	16	6.8	9	3.8	1	0.4
	위험군	137	52.1	55	20.9	23	8.7	21	8.0	18	6.8	8	3.0	1	0.4
계		223	44.6	125	25.0	55	11.0	44	8.8	34	6.8	17	3.4	2	0.4

- 향후 미래 노후 생활 전망과 관련해서 ‘전혀 어렵지 않음(1점)’ ~ ‘매우 어려움(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전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관계, 정서적 상황, 주거 상황에 대해 타 영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5] 향후 미래 노후 생활 전망

(n=500)

구분		전반적 삶의 질	경제적 상황	정서적 상황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주거 상황
성별	남자	2.47	2.58	2.66	2.63	2.72	2.67
	여자	2.46	2.40	2.65	2.55	2.69	2.5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51	2.52	2.74	2.53	2.72	2.59
	방학권	2.46	2.64	2.63	2.66	2.75	2.63
	창동권	2.41	2.39	2.63	2.59	2.67	2.52
	도봉권	2.52	2.48	2.61	2.62	2.70	2.74
연령대	20대	2.63	2.59	2.86	2.86	2.89	2.74
	30대	2.49	2.52	2.65	2.64	2.79	2.48
	40대	2.44	2.48	2.65	2.65	2.61	2.58
	50대	2.40	2.45	2.56	2.49	2.65	2.61
	60대	2.42	2.46	2.61	2.46	2.66	2.61
생애 주기별	청년	2.50	2.52	2.70	2.71	2.80	2.58
	중장년	2.47	2.47	2.63	2.56	2.64	2.59
	노년	2.31	2.49	2.58	2.33	2.64	2.69
은둔 수준	일반군	2.65	2.63	2.81	2.70	2.85	2.74
	위험군	2.29	2.37	2.51	2.49	2.57	2.47
전체		2.46	2.49	2.65	2.59	2.71	2.60

- 먼저, 전반적 삶의 질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절반(50.4%, 252명)가량은 향후 노후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함.

[표 4-56] 향후 미래 노후 생활 전망 : 전반적 삶의 질

(n=500)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9	3.5	116	44.8	121	46.7	13	5.0	2.47
	여자	4	1.7	119	49.4	102	42.3	16	6.6	2.4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0	0.0	71	56.3	48	38.1	7	5.6	2.51
	방학권	1	0.9	52	46.8	55	49.5	3	2.7	2.46
	창동권	4	2.2	77	43.0	86	48.0	12	6.7	2.41
	도봉권	8	9.5	35	41.7	34	40.5	7	8.3	2.52
연령대	20대	2	2.7	44	60.3	25	34.2	2	2.7	2.63
	30대	6	6.1	41	41.8	46	46.9	5	5.1	2.49
	40대	1	1.2	38	45.2	42	50.0	3	3.6	2.44
	50대	2	1.9	47	43.5	51	47.2	8	7.4	2.40
	60대	2	1.5	65	47.4	59	43.1	11	8.0	2.42
생애 주기별	청년	8	3.9	96	46.6	92	44.7	10	4.9	2.50
	중장년	3	1.3	120	50.2	103	43.1	13	5.4	2.47
	노년	2	3.6	19	34.5	28	50.9	6	10.9	2.31
은둔 수준	일반군	9	3.8	139	58.6	87	36.7	2	0.8	2.65
	위험군	4	1.5	96	36.5	136	51.7	27	10.3	2.29
계		13	2.6	235	47.0	223	44.6	29	5.8	2.46

□ 경제적 상황의 경우는 52.0%(260명)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경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5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57] 향후 미래 노후 생활 전망 : 경제적 상황

(n=500)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5	5.8	135	52.1	93	35.9	16	6.2	2.58
	여자	12	5.0	98	40.7	106	44.0	25	10.4	2.4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6	4.8	63	50.0	48	38.1	9	7.1	2.52
	방학권	5	4.5	67	60.4	33	29.7	6	5.4	2.64
	창동권	10	5.6	66	36.9	86	48.0	17	9.5	2.39
	도봉권	6	7.1	37	44.0	32	38.1	9	10.7	2.48
연령대	20대	3	4.1	40	54.8	27	37.0	3	4.1	2.59
	30대	5	5.1	46	46.9	42	42.9	5	5.1	2.52
	40대	3	3.6	40	47.6	35	41.7	6	7.1	2.48
	50대	5	4.6	50	46.3	42	38.9	11	10.2	2.45
	60대	11	8.0	57	41.6	53	38.7	16	11.7	2.46
생애 주기별	청년	9	4.4	101	49.0	84	40.8	12	5.8	2.52
	중장년	11	4.6	112	46.9	94	39.3	22	9.2	2.47
	노년	7	12.7	20	36.4	21	38.2	7	12.7	2.49
은둔 수준	일반군	13	5.5	131	55.3	86	36.3	7	3.0	2.63
	위험군	14	5.3	102	38.8	113	43.0	34	12.9	2.37
계		27	5.4	233	46.6	199	39.8	41	8.2	2.49

□ 정서적 상황은 61.4%(307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 (38.6%, 193명)보다 높게 나타남.

[표 4-58] 향후 미래 노후 생활 전망 : 정서적 상황

(n=500)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6	6.2	143	55.2	95	36.7	5	1.9	2.66
	여자	23	9.5	125	51.9	79	32.8	14	5.8	2.6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	4.0	87	69.0	30	23.8	4	3.2	2.74
	방학권	12	10.8	49	44.1	47	42.3	3	2.7	2.63
	창동권	15	8.4	93	52.0	61	34.1	10	5.6	2.63
	도봉권	7	8.3	39	46.4	36	42.9	2	2.4	2.61
연령대	20대	10	13.7	46	63.0	14	19.2	3	4.1	2.86
	30대	11	11.2	46	46.9	37	37.8	4	4.1	2.65
	40대	6	7.1	45	53.6	31	36.9	2	2.4	2.65
	50대	2	1.9	60	55.6	43	39.8	3	2.8	2.56
	60대	10	7.3	71	51.8	49	35.8	7	5.1	2.61
생애 주기별	청년	22	10.7	110	53.4	65	31.6	9	4.4	2.70
	중장년	12	5.0	132	55.2	89	37.2	6	2.5	2.63
	노년	5	9.1	26	47.3	20	36.4	4	7.3	2.58
은둔 수준	일반군	20	8.4	154	65.0	61	25.7	2	0.8	2.81
	위험군	19	7.2	114	43.3	113	43.0	17	6.5	2.51
계		39	7.8	268	53.6	174	34.8	19	3.8	2.65

- 건강상태의 경우,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54.8%(274명)으로 나타남. 한편, 노인세대와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은 향후 미래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응답이 많았음.

[표 4-59] 향후 미래 노후 생활 전망 : 건강상태

(n=500)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6	10.0	122	47.1	101	39.0	10	3.9	2.63
	여자	17	7.1	109	45.2	105	43.6	10	4.1	2.5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	1.6	67	53.2	53	42.1	4	3.2	2.53
	방학권	13	11.7	52	46.8	41	36.9	5	4.5	2.66
	창동권	20	11.2	75	41.9	74	41.3	10	5.6	2.59
	도봉권	8	9.5	37	44.0	38	45.2	1	1.2	2.62
연령대	20대	14	19.2	38	52.1	18	24.7	3	4.1	2.86
	30대	11	11.2	46	46.9	36	36.7	5	5.1	2.64
	40대	6	7.1	46	54.8	29	34.5	3	3.6	2.65
	50대	4	3.7	49	45.4	51	47.2	4	3.7	2.49
	60대	8	5.8	52	38.0	72	52.6	5	3.6	2.46
생애 주기별	청년	27	13.1	101	49.0	69	33.5	9	4.4	2.71
	중장년	14	5.9	112	46.9	106	44.4	7	2.9	2.56
	노년	2	3.6	18	32.7	31	56.4	4	7.3	2.33
은둔 수준	일반군	25	10.5	121	51.1	87	36.7	4	1.7	2.70
	위험군	18	6.8	110	41.8	119	45.2	16	6.1	2.49
계		43	8.6	231	46.2	206	41.2	20	4.0	2.59

- 사회적 관계의 경우,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5.6%(328명)으로 어렵다는 응답(34.4%, 172명)보다 많았음.

[표 4-60] 향후 미래 노후 생활 전망 : 사회적 관계

(n=500)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	6.9	156	60.2	79	30.5	6	2.3	2.72
	여자	20	8.3	134	55.6	80	33.2	7	2.9	2.6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	2.4	88	69.8	32	25.4	3	2.4	2.72
	방학권	14	12.6	58	52.3	36	32.4	3	2.7	2.75
	창동권	16	8.9	95	53.1	61	34.1	7	3.9	2.67
	도봉권	5	6.0	49	58.3	30	35.7	0	0.0	2.70
연령대	20대	10	13.7	46	63.0	16	21.9	1	1.4	2.89
	30대	12	12.2	58	59.2	23	23.5	5	5.1	2.79
	40대	4	4.8	45	53.6	33	39.3	2	2.4	2.61
	50대	4	3.7	64	59.3	38	35.2	2	1.9	2.65
	60대	8	5.8	77	56.2	49	35.8	3	2.2	2.66
생애 주기별	청년	24	11.7	123	59.7	53	25.7	6	2.9	2.80
	중장년	11	4.6	138	57.7	83	34.7	7	2.9	2.64
	노년	3	5.5	29	52.7	23	41.8	0	0.0	2.64
은둔 수준	일반군	18	7.6	168	70.9	49	20.7	2	0.8	2.85
	위험군	20	7.6	122	46.4	110	41.8	11	4.2	2.57
계		38	7.6	290	58.0	159	31.8	13	2.6	2.71

□ 주거 상황과 관련해서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0.0%(300명)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음.

[표 4-61] 향후 미래 노후 생활 전망 : 주거 상황

(n=500)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9	3.5	162	62.5	82	31.7	6	2.3	2.67
	여자	8	3.3	121	50.2	100	41.5	12	5.0	2.5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	0.8	77	61.1	43	34.1	5	4.0	2.59
	방학권	2	1.8	67	60.4	41	36.9	1	0.9	2.63
	창동권	6	3.4	89	49.7	76	42.5	8	4.5	2.52
	도봉권	8	9.5	50	59.5	22	26.2	4	4.8	2.74
연령대	20대	4	5.5	46	63.0	23	31.5	0	0.0	2.74
	30대	4	4.1	45	45.9	43	43.9	6	6.1	2.48
	40대	1	1.2	50	59.5	30	35.7	3	3.6	2.58
	50대	3	2.8	62	57.4	41	38.0	2	1.9	2.61
	60대	5	3.6	80	58.4	45	32.8	7	5.1	2.61
생애 주기별	청년	8	3.9	111	53.9	79	38.3	8	3.9	2.58
	중장년	5	2.1	138	57.7	90	37.7	6	2.5	2.59
	노년	4	7.3	34	61.8	13	23.6	4	7.3	2.69
은둔 수준	일반군	11	4.6	157	66.2	66	27.8	3	1.3	2.74
	위험군	6	2.3	126	47.9	116	44.1	15	5.7	2.47
계		17	3.4	283	56.6	182	36.4	18	3.6	2.60

□ 향후 1인가구 유지를 희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다수(61.2%, 306명)는 유지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40대(70.2%)와 중장년(68.6%)의 1인가구 유지 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4-62] 향후 1인가구 유지 희망

(n=500)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0	7.7	97	37.5	133	51.4	9	3.5	2.51
	여자	8	3.3	69	28.6	142	58.9	22	9.1	2.7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3.2	36	28.6	79	62.7	7	5.6	2.71
	방학권	9	8.1	38	34.2	59	53.2	5	4.5	2.54
	창동권	5	2.8	62	34.6	100	55.9	12	6.7	2.66
	도봉권	10	11.9	30	35.7	37	44.0	7	8.3	2.49
연령대	20대	3	4.1	31	42.5	34	46.6	5	6.8	2.56
	30대	6	6.1	39	39.8	42	42.9	11	11.2	2.59
	40대	6	7.1	19	22.6	55	65.5	4	4.8	2.68
	50대	6	5.6	34	31.5	66	61.1	2	1.9	2.59
	60대	7	5.1	43	31.4	78	56.9	9	6.6	2.65
생애 주기별	청년	12	5.8	79	38.3	98	47.6	17	8.3	2.58
	중장년	10	4.2	65	27.2	156	65.3	8	3.3	2.68
	노년	6	10.9	22	40.0	21	38.2	6	10.9	2.49
은둔 수준	일반군	16	6.8	67	28.3	136	57.4	18	7.6	2.66
	위험군	12	4.6	99	37.6	139	52.9	13	4.9	2.58
계		28	5.6	166	33.2	275	55.0	31	6.2	2.62

2. 건강 및 긴급 돌봄

- 도봉구 1인가구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보다는 남성의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았고, 청년 세대의 긍정적 건강상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상대적 취약성이 나타남.

[표 4-63] 도봉구 1인가구 건강상태

(n=500)

구분		빈도	평균	
		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성별	남자	259	2.82	2.95
	여자	241	2.72	2.7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26	2.75	2.83
	방학권	111	2.86	3.00
	창동권	179	2.74	2.84
	도봉권	84	2.76	2.73
연령대	20대	73	2.92	2.95
	30대	98	2.84	2.84
	40대	84	2.87	2.96
	50대	108	2.75	2.86
	60대	137	2.61	2.74
생애 주기별	청년	206	2.86	2.89
	중장년	239	2.76	2.87
	노년	55	2.51	2.65
은둔 수준	일반군	237	2.89	2.99
	위험군	263	2.67	2.73
계		500	2.77	2.85

- 구체적으로, 신체적 건강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77.6%, 388명)은 현재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남성, 청년 세대의 경우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보임.
- 정신적 건강 상태 역시 현재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82.2%(411명)로 나타나, 도봉 구민의 전반적 정신 건강은 긍정적 인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다만,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과 일반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긍정적 인식 차이가 약 20%p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 건강에 대한 상대적 취약성을 예측할 수 있음.

[표 4-64] 건강상태 : 신체적 건강

(n=500)

구분		매우 나쁨		나쁨		중음		매우 좋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	2.7	39	15.1	206	79.5	7	2.7	2.82
	여자	6	2.5	60	24.9	170	70.5	5	2.1	2.7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	2.4	26	20.6	96	76.2	1	0.8	2.75
	방학권	3	2.7	13	11.7	91	82.0	4	3.6	2.86
	창동권	5	2.8	41	22.9	129	72.1	4	2.2	2.74
	도봉권	2	2.4	19	22.6	60	71.4	3	3.6	2.76
연령대	20대	2	2.7	6	8.2	61	83.6	4	5.5	2.92
	30대	2	2.0	15	15.3	78	79.6	3	3.1	2.84
	40대	0	0.0	13	15.5	69	82.1	2	2.4	2.87
	50대	4	3.7	22	20.4	79	73.1	3	2.8	2.75
	60대	5	3.6	43	31.4	89	65.0	0	0.0	2.61
생애 주기별	청년	4	1.9	29	14.1	165	80.1	8	3.9	2.86
	중장년	6	2.5	49	20.5	180	75.3	4	1.7	2.76
	노년	3	5.5	21	38.2	31	56.4	0	0.0	2.51
은둔 수준	일반군	3	1.3	29	12.2	197	83.1	8	3.4	2.89
	위험군	10	3.8	70	26.6	179	68.1	4	1.5	2.67
계		13	2.6	99	19.8	376	75.2	12	2.4	2.77

[표 4-65] 건강상태 : 정신적 건강

(n=500)

구분		매우 나쁨		나쁨		중음		매우 좋음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	1.5	26	10.0	208	80.3	21	8.1	2.85
	여자	9	3.7	50	20.7	174	72.2	8	3.3	2.9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3.2	14	11.1	107	84.9	1	0.8	2.75
	방학권	1	0.9	14	12.6	80	72.1	16	14.4	2.83
	창동권	6	3.4	24	13.4	142	79.3	7	3.9	3.00
	도봉권	2	2.4	24	28.6	53	63.1	5	6.0	2.84
연령대	20대	2	2.7	8	11.0	55	75.3	8	11.0	2.73
	30대	4	4.1	15	15.3	72	73.5	7	7.1	2.95
	40대	0	0.0	8	9.5	71	84.5	5	6.0	2.84
	50대	1	0.9	19	17.6	82	75.9	6	5.6	2.96
	60대	6	4.4	26	19.0	102	74.5	3	2.2	2.86
생애 주기별	청년	6	2.9	29	14.1	153	74.3	18	8.7	2.74
	중장년	5	2.1	31	13.0	193	80.8	10	4.2	2.89
	노년	2	3.6	16	29.1	36	65.5	1	1.8	2.87
은둔 수준	일반군	1	0.4	17	7.2	203	85.7	16	6.8	2.65
	위험군	12	4.6	59	22.4	179	68.1	13	4.9	2.99
계		13	2.6	76	15.2	382	76.4	29	5.8	2.73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건강 악화가 40.2%, 제때 챙기지 못하는 식사 때문이라는 응답이 30.9%의 순으로 나타남.

[표 4-66]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n=138)

구분		경제적 어려움		질병 및 장애		운동의 어려움		규칙적 식사 어려움		가족의 부재		의료 접근성 떨어짐		음주·흡연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4	44.4	25	46.3	13	24.1	16	29.6	6	11.1	6	11.1	3	5.6	0	0.0
	여자	36	42.9	32	38.1	26	31.0	21	25.0	20	23.8	7	8.3	5	6.0	1	1.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22.2	17	47.2	12	33.3	10	27.8	2	5.6	2	5.6	2	5.6	1	2.8
	방학권	10	45.5	6	27.3	6	27.3	4	18.2	6	27.3	3	13.6	0	0.0	0	0.0
	창동권	20	39.2	27	52.9	16	31.4	17	33.3	7	13.7	6	11.8	5	9.8	0	0.0
	도봉권	22	75.9	7	24.1	5	17.2	6	20.7	11	37.9	2	6.9	1	3.4	0	0.0
연령대	20대	5	41.7	3	25.0	6	50.0	5	41.7	4	33.3	2	16.7	2	16.7	1	8.3
	30대	10	43.5	7	30.4	8	34.8	11	47.8	4	17.4	3	13.0	1	4.3	0	0.0
	40대	4	26.7	5	33.3	6	40.0	2	13.3	1	6.7	0	0.0	1	6.7	0	0.0
	50대	13	41.9	18	58.1	6	19.4	6	19.4	2	6.5	3	9.7	1	3.2	0	0.0
생애 주기별	60대	28	49.1	24	42.1	13	22.8	13	22.8	15	26.3	5	8.8	3	5.3	0	0.0
	청년	18	40.0	13	28.9	18	40.0	18	40.0	9	20.0	5	11.1	4	8.9	1	2.2
	중장년	29	45.3	35	54.7	14	21.9	11	17.2	7	10.9	5	7.8	3	4.7	0	0.0
	노년	13	44.8	9	31.0	7	24.1	8	27.6	10	34.5	3	10.3	1	3.4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10	24.4	18	43.9	18	43.9	7	17.1	8	19.5	5	12.2	1	2.4	1	2.4
	위험군	50	51.5	39	40.2	21	21.6	30	30.9	18	18.6	8	8.2	7	7.2	0	0.0
계		60	43.5	57	41.3	39	28.3	37	26.8	26	18.8	13	9.4	8	5.8	1	0.7

*건강상태 좋지 않다는 응답자 대상으로 설문함

- 만성질환의 보유 비율도 과반 이하(40.6%, 203명)로 나타남. 다만, 여성, 고연령,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 비율이 높은 편임.

[표 4-67] 만성질환 여부

(n=500)

구분		없음		있음	
		명	%	명	%
성별	남자	162	62.5	97	37.5
	여자	135	56.0	106	44.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0	63.5	46	36.5
	방학권	85	76.6	26	23.4
	창동권	83	46.4	96	53.6
	도봉권	49	58.3	35	41.7
연령대	20대	64	87.7	9	12.3
	30대	69	70.4	29	29.6
	40대	57	67.9	27	32.1
	50대	52	48.1	56	51.9
	60대	55	40.1	82	59.9
생애 주기별	청년	154	74.8	52	25.2
	중장년	126	52.7	113	47.3
	노년	17	30.9	38	69.1
은둔 수준	일반군	169	71.3	68	28.7
	위험군	128	48.7	135	51.3
계		297	59.4	203	40.6

- 응답자의 대부분(94.2%, 471명)은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91.8%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음.

[표 4-68] 건강검진 빈도

(n=500)

구분		없음		현재까지 1회		1년에 1회		2~3년에 1회		4~5년에 1회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	6.9	7	2.7	117	45.2	109	42.1	8	3.1
	여자	11	4.6	5	2.1	90	37.3	129	53.5	6	2.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3.2	3	2.4	55	43.7	62	49.2	2	1.6
	방학권	6	5.4	1	0.9	54	48.6	48	43.2	2	1.8
	창동권	7	3.9	6	3.4	63	35.2	99	55.3	4	2.2
	도봉권	12	14.3	2	2.4	35	41.7	29	34.5	6	7.1
연령대	20대	10	13.7	3	4.1	29	39.7	31	42.5	0	0.0
	30대	5	5.1	4	4.1	47	48.0	39	39.8	3	3.1
	40대	6	7.1	1	1.2	35	41.7	42	50.0	0	0.0
	50대	3	2.8	1	0.9	40	37.0	59	54.6	5	4.6
	60대	5	3.6	3	2.2	56	40.9	67	48.9	6	4.4
생애 주기별	청년	15	7.3	8	3.9	86	41.7	94	45.6	3	1.5
	중장년	11	4.6	2	0.8	100	41.8	118	49.4	8	3.3
	노년	3	5.5	2	3.6	21	38.2	26	47.3	3	5.5
은둔 수준	일반군	17	7.2	6	2.5	98	41.4	114	48.1	2	0.8
	위험군	12	4.6	6	2.3	109	41.4	124	47.1	12	4.6
계		29	5.8	12	2.4	207	41.4	238	47.6	14	2.8

- 건강검진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현재 특별히 아프거나 증상이 없어 건강이 양호하다는 이유가 5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용 부담이 24.1%, 현재 건강검진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는 응답이 10.3% 순으로 나타남.

[표 4-69] 건강검진 받지 않은 이유*

(n=29)

구분		비용 부담		시간 부족		대상자 아님		건강 양호		검진 결과 두려움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	16.7	1	5.6	3	16.7	10	55.6	1	5.6
	여자	4	36.4	1	9.1	0	0.0	6	54.5	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0	0.0	0	0.0	1	25.0	3	75.0	0	0.0
	방학권	2	33.3	1	16.7	1	16.7	2	33.3	0	0.0
	창동권	3	42.9	0	0.0	1	14.3	3	42.9	0	0.0
	도봉권	2	16.7	1	8.3	0	0.0	8	66.7	1	8.3
연령대	20대	3	30.0	0	0.0	2	20.0	5	50.0	0	0.0
	30대	1	20.0	0	0.0	1	20.0	3	60.0	0	0.0
	40대	0	0.0	1	16.7	0	0.0	4	66.7	1	16.7
	50대	1	33.3	0	0.0	0	0.0	2	66.7	0	0.0
	60대	2	40.0	1	20.0	0	0.0	2	40.0	0	0.0
생애 주기별	청년	4	26.7	0	0.0	3	20.0	8	53.3	0	0.0
	중장년	2	18.2	1	9.1	0	0.0	7	63.6	1	9.1
	노년	1	33.3	1	33.3	0	0.0	1	33.3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3	17.6	0	0.0	2	11.8	11	64.7	1	5.9
	위험군	4	33.3	2	16.7	1	8.3	5	41.7	0	0.0
계		7	24.1	2	6.9	3	10.3	16	55.2	1	3.4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응답자

- 지난 1년간 정신건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음(1점)’ ~ ‘거의 매일 경험함(5점)’의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본인의 정신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일상 생활 중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
-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감과 관련하여,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29.8%(149명)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가벼운 우울감 혹은 그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노년,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우울감 경험 비율이 높았고, 지역적으로는 도봉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우울감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0] 정신건강과 관련한 어려움

(n=500)

구분		우울감	음주	불안감	스트레스	자살생각
성별	남자	1.84	2.13	1.83	2.36	1.56
	여자	2.10	1.86	2.14	2.49	1.73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94	2.13	1.96	2.27	1.52
	방학권	1.72	1.56	1.63	1.94	1.52
	창동권	2.06	2.11	2.12	2.72	1.87
	도봉권	2.12	2.15	2.18	2.67	1.50
연령대	20대	1.77	2.05	1.84	2.33	1.49
	30대	2.02	2.05	2.10	2.55	1.58
	40대	1.93	2.05	1.94	2.42	1.54
	50대	1.94	1.98	1.94	2.32	1.77
	60대	2.07	1.91	2.03	2.46	1.74
생애 주기별	청년	1.92	2.09	2.02	2.48	1.59
	중장년	1.98	1.92	1.92	2.36	1.71
	노년	2.04	2.00	2.07	2.49	1.56
은둔 수준	일반군	1.76	2.03	1.77	2.26	1.39
	위험군	2.15	1.97	2.17	2.57	1.87
계		1.96	2.00	1.98	2.42	1.64

[표 4-71]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 우울감

(n=500)

구분		경험 없음		아주 가끔		자주 경험		매우 자주		거의 매일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87	33.6	137	52.9	27	10.4	6	2.3	2	0.8	1.96
	여자	62	25.7	120	49.8	39	16.2	13	5.4	7	2.9	1.8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5	27.8	73	57.9	11	8.7	5	4.0	2	1.6	2.10
	방학권	49	44.1	46	41.4	15	13.5	0	0.0	1	0.9	1.94
	창동권	49	27.4	90	50.3	26	14.5	8	4.5	6	3.4	1.72
	도봉권	16	19.0	48	57.1	14	16.7	6	7.1	0	0.0	2.06
연령대	20대	30	41.1	36	49.3	3	4.1	2	2.7	2	2.7	2.12
	30대	29	29.6	47	48.0	17	17.3	1	1.0	4	4.1	1.77
	40대	24	28.6	45	53.6	12	14.3	3	3.6	0	0.0	2.02
	50대	32	29.6	55	50.9	16	14.8	5	4.6	0	0.0	1.93
	60대	34	24.8	74	54.0	18	13.1	8	5.8	3	2.2	1.94
생애 주기별	청년	70	34.0	99	48.1	26	12.6	5	2.4	6	2.9	2.07
	중장년	65	27.2	128	53.6	34	14.2	9	3.8	3	1.3	1.92
	노년	14	25.5	30	54.5	6	10.9	5	9.1	0	0.0	1.98
은둔 수준	일반군	84	35.4	131	55.3	19	8.0	2	0.8	1	0.4	2.04
	위험군	65	24.7	126	47.9	47	17.9	17	6.5	8	3.0	1.76
계		149	29.8	257	51.4	66	13.2	19	3.8	9	1.8	2.15

- 불안감의 경우 역시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29.8%(149명)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불안감을 경험함. 특히, 불안감 역시 여성, 노년,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험 비율이 높았고, 지역적으로는 도봉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불안감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2]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 불안감

(n=500)

구분		경험 없음		아주 가끔		자주 경험		매우 자주		거의 매일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91	35.1	126	48.6	37	14.3	5	1.9	0	0.0	1.83
	여자	58	24.1	122	50.6	39	16.2	13	5.4	9	3.7	2.1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0	23.8	78	61.9	14	11.1	1	0.8	3	2.4	1.96
	방학권	54	48.6	45	40.5	11	9.9	1	0.9	0	0.0	1.63
	창동권	49	27.4	81	45.3	34	19.0	9	5.0	6	3.4	2.12
	도봉권	16	19.0	44	52.4	17	20.2	7	8.3	0	0.0	2.18
연령대	20대	29	39.7	34	46.6	6	8.2	1	1.4	3	4.1	1.84
	30대	30	30.6	39	39.8	21	21.4	5	5.1	3	3.1	2.10
	40대	22	26.2	48	57.1	11	13.1	3	3.6	0	0.0	1.94
	50대	31	28.7	55	50.9	20	18.5	2	1.9	0	0.0	1.94
	60대	37	27.0	72	52.6	18	13.1	7	5.1	3	2.2	2.03
생애 주기별	청년	65	31.6	91	44.2	36	17.5	8	3.9	6	2.9	2.02
	중장년	71	29.7	126	52.7	34	14.2	6	2.5	2	0.8	1.92
	노년	13	23.6	31	56.4	6	10.9	4	7.3	1	1.8	2.07
은둔 수준	일반군	79	33.3	135	57.0	21	8.9	2	0.8	0	0.0	1.77
	위험군	70	26.6	113	43.0	55	20.9	16	6.1	9	3.4	2.17
계		149	29.8	248	49.6	76	15.2	18	3.6	9	1.8	1.98

□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서는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2%(76명)에 그쳐, 국민의 평상시 스트레스 관리 취약성을 예측할 수 있음.

[표 4-73]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 스트레스

(n=500)

구분		경험 없음		아주 가끔		자주 경험		매우 자주		거의 매일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5	17.4	107	41.3	80	30.9	22	8.5	5	1.9	2.36
	여자	31	12.9	106	44.0	71	29.5	22	9.1	11	4.6	2.4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7	13.5	64	50.8	42	33.3	0	0.0	3	2.4	2.27
	방학권	32	28.8	57	51.4	20	18.0	1	0.9	1	0.9	1.94
	창동권	18	10.1	71	39.7	46	25.7	32	17.9	12	6.7	2.72
	도봉권	9	10.7	21	25.0	43	51.2	11	13.1	0	0.0	2.67
연령대	20대	16	21.9	26	35.6	25	34.2	3	4.1	3	4.1	2.33
	30대	14	14.3	38	38.8	30	30.6	10	10.2	6	6.1	2.55
	40대	13	15.5	33	39.3	29	34.5	8	9.5	1	1.2	2.42
	50대	15	13.9	53	49.1	32	29.6	6	5.6	2	1.9	2.32
	60대	18	13.1	63	46.0	35	25.5	17	12.4	4	2.9	2.46
생애 주기별	청년	34	16.5	77	37.4	67	32.5	19	9.2	9	4.4	2.48
	중장년	38	15.9	108	45.2	69	28.9	17	7.1	7	2.9	2.36
	노년	4	7.3	28	50.9	15	27.3	8	14.5	0	0.0	2.49
은둔 수준	일반군	36	15.2	111	46.8	82	34.6	8	3.4	0	0.0	2.26
	위험군	40	15.2	102	38.8	69	26.2	36	13.7	16	6.1	2.57
계		76	15.2	213	42.6	151	30.2	44	8.8	16	3.2	2.42

□ 자살 생각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46.2%(231명)이 한 번이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중장년,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4]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 자살생각

(n=500)

구분		경험 없음		아주 가끔		자주 경험		매우 자주		거의 매일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52	58.7	77	29.7	22	8.5	7	2.7	1	.4	1.56
	여자	117	48.5	88	36.5	26	10.8	4	1.7	6	2.5	1.73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0	55.6	49	38.9	5	4.0	1	.8	1	.8	1.52
	방학권	68	61.3	32	28.8	8	7.2	2	1.8	1	.9	1.52
	창동권	78	43.6	61	34.1	29	16.2	7	3.9	4	2.2	1.87
	도봉권	53	63.1	23	27.4	6	7.1	1	1.2	1	1.2	1.50
연령대	20대	49	67.1	18	24.7	2	2.7	2	2.7	2	2.7	1.49
	30대	59	60.2	28	28.6	6	6.1	3	3.1	2	2.0	1.58
	40대	47	56.0	29	34.5	8	9.5	0	0.0	0	0.0	1.54
	50대	50	46.3	38	35.2	16	14.8	3	2.8	1	.9	1.77
	60대	64	46.7	52	38.0	16	11.7	3	2.2	2	1.5	1.74
생애 주기별	청년	121	58.7	61	29.6	15	7.3	5	2.4	4	1.9	1.59
	중장년	118	49.4	84	35.1	29	12.1	5	2.1	3	1.3	1.71
	노년	30	54.5	20	36.4	4	7.3	1	1.8	0	0.0	1.56
은둔 수준	일반군	160	67.5	64	27.0	11	4.6	2	.8	0	0.0	1.39
	위험군	109	41.4	101	38.4	37	14.1	9	3.4	7	2.7	1.87
계		269	53.8	165	33.0	48	9.6	11	2.2	7	1.4	1.64

- 응답자의 대부분은 주 2회 이상 음주를 경험하고 있으며, 남성, 청년 세대의 음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또한 지역적으로는 도봉권에 거주하는 구민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5]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 음주 경험

(n=500)

구분		경험 없음		아주 가끔		자주 경험		매우 자주		거의 매일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8	30.1	91	35.1	72	27.8	15	5.8	3	1.2	2.13
	여자	106	44.0	81	33.6	41	17.0	8	3.3	5	2.1	1.86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1	32.5	46	36.5	24	19.0	12	9.5	3	2.4	2.13
	방학권	62	55.9	39	35.1	8	7.2	1	0.9	1	0.9	1.56
	창동권	57	31.8	57	31.8	57	31.8	5	2.8	3	1.7	2.11
	도봉권	24	28.6	30	35.7	24	28.6	5	6.0	1	1.2	2.15
연령대	20대	26	35.6	26	35.6	14	19.2	5	6.8	2	2.7	2.05
	30대	35	35.7	30	30.6	27	27.6	5	5.1	1	1.0	2.05
	40대	29	34.5	29	34.5	20	23.8	5	6.0	1	1.2	2.05
	50대	41	38.0	38	35.2	22	20.4	4	3.7	3	2.8	1.98
	60대	53	38.7	49	35.8	30	21.9	4	2.9	1	0.7	1.91
생애 주기별	청년	72	35.0	65	31.6	52	25.2	13	6.3	4	1.9	2.09
	중장년	91	38.1	92	38.5	44	18.4	8	3.3	4	1.7	1.92
	노년	21	38.2	15	27.3	17	30.9	2	3.6	0	0.0	2.00
은둔 수준	일반군	82	34.6	89	37.6	46	19.4	17	7.2	3	1.3	2.03
	위험군	102	38.8	83	31.6	67	25.5	6	2.3	5	1.9	1.97
계		184	36.8	172	34.4	113	22.6	23	4.6	8	1.6	2.00

- 음주 습관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금주, 음주로 인한 어려움 경험 측면에서 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4-76] 음주 습관 관련 경험

(n=500)

구분		금주 노력이 힘들다				주변인들의 걱정이 있다				음주로 인한 죄책감 있다				해장술 혹은 정신차리기 위한 음주 경험 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65	25.1	194	74.9	70	27.0	189	73.0	58	22.4	201	77.6	83	32.0	176	68.0
	여자	45	18.7	196	81.3	37	15.4	204	84.6	45	18.7	196	81.3	40	16.6	201	83.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1	8.7	115	91.3	11	8.7	115	91.3	11	8.7	115	91.3	13	10.3	113	89.7
	방학권	26	23.4	85	76.6	34	30.6	77	69.4	24	21.6	87	78.4	23	20.7	88	79.3
	창동권	63	35.2	116	64.8	42	23.5	137	76.5	52	29.1	127	70.9	62	34.6	117	65.4
	도봉권	10	11.9	74	88.1	20	23.8	64	76.2	16	19.0	68	81.0	25	29.8	59	70.2
연령대	20대	12	16.4	61	83.6	12	16.4	61	83.6	6	8.2	67	91.8	11	15.1	62	84.9
	30대	21	21.4	77	78.6	23	23.5	75	76.5	19	19.4	79	80.6	29	29.6	69	70.4
	40대	16	19.0	68	81.0	18	21.4	66	78.6	21	25.0	63	75.0	19	22.6	65	77.4
	50대	33	30.6	75	69.4	22	20.4	86	79.6	30	27.8	78	72.2	32	29.6	76	70.4
	60대	28	20.4	109	79.6	32	23.4	105	76.6	27	19.7	110	80.3	32	23.4	105	76.6
	청년	41	19.9	165	80.1	39	18.9	167	81.1	33	16.0	173	84.0	47	22.8	159	77.2
생애 주기별	중장년	59	24.7	180	75.3	56	23.4	183	76.6	62	25.9	177	74.1	61	25.5	178	74.5
	노년	10	18.2	45	81.8	12	21.8	43	78.2	8	14.5	47	85.5	15	27.3	40	72.7
은둔 수준	일반군	41	17.3	196	82.7	50	21.1	187	78.9	39	16.5	198	83.5	61	25.7	176	74.3
	위험군	69	26.2	194	73.8	57	21.7	206	78.3	64	24.3	199	75.7	62	23.6	201	76.4
계		110	22.0	390	78.0	107	21.4	393	78.6	103	20.6	397	79.4	123	24.6	377	75.4

□ 식사는 직접 요리를 해먹는다는 응답이 31.0%(15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찬가게, 밀키트 등은 조리된 음식을 구매해서 먹는다는 응답이 18.0%(90명), 간편식(라면,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5.2%(76명)의 순으로 나타남. 다만, 연령별 식사 해결 방법이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 세대는 간편식과 배달음식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았고, 중장년 및 노년 세대는 직접 요리를 해 먹거나, (반)조리 음식을 구매 혹은 식당에서 해결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4-77] 식사 관련 경험

구분		식당		배달음식		간편식		직접 요리		직장·학교		(반)조리 음식 구매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8	22.4	56	21.6	45	17.4	31	12.0	24	9.3	45	17.4	0	0.0
	여자	11	4.6	16	6.6	31	12.9	124	51.5	13	5.4	45	18.7	1	0.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6	12.7	19	15.1	17	13.5	44	34.9	3	2.4	26	20.6	1	0.8
	방학권	10	9.0	21	18.9	12	10.8	39	35.1	4	3.6	25	22.5	0	0.0
	창동권	20	11.2	25	14.0	39	21.8	46	25.7	22	12.3	27	15.1	0	0.0
	도봉권	23	27.4	7	8.3	8	9.5	26	31.0	8	9.5	12	14.3	0	0.0
	20대	5	6.8	19	26.0	21	28.8	12	16.4	6	8.2	10	13.7	0	0.0
연령대	30대	15	15.3	22	22.4	20	20.4	19	19.4	9	9.2	13	13.3	0	0.0
	40대	12	14.3	15	17.9	9	10.7	21	25.0	11	13.1	15	17.9	1	1.2
	50대	21	19.4	9	8.3	13	12.0	34	31.5	7	6.5	24	22.2	0	0.0
	60대	16	11.7	7	5.1	13	9.5	69	50.4	4	2.9	28	20.4	0	0.0
	청년	23	11.2	47	22.8	48	23.3	40	19.4	19	9.2	29	14.1	0	0.0
생애 주기별	중장년	36	15.1	22	9.2	25	10.5	90	37.7	17	7.1	48	20.1	1	0.4
	노년	10	18.2	3	5.5	3	5.5	25	45.5	1	1.8	13	23.6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46	19.4	28	11.8	31	13.1	78	32.9	19	8.0	35	14.8	0	0.0
	위험군	23	8.7	44	16.7	45	17.1	77	29.3	18	6.8	55	20.9	1	0.4
	계	69	13.8	72	14.4	76	15.2	155	31.0	37	7.4	90	18.0	1	0.2

(n=500)

□ 식사 해결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8.4%(92명)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양가가 있는 식사를 먹기 힘들어 16.8%(84명), 귀찮음이 12.8%(64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78] 식사 해결의 어려움

구분		같이 식사할 사람 없음		경제적 어려움		영양가 있는 식사 어려움		시간 부족		요리를 못함		식재료 낭비		귀찮음		특별한 어려움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6	21.6	25	9.7	39	15.1	11	4.2	51	19.7	28	10.8	28	10.8	21	8.1
	여자	36	14.9	26	10.8	45	18.7	10	4.1	12	5.0	35	14.5	36	14.9	41	17.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3	18.3	8	6.3	9	7.1	7	5.6	16	12.7	12	9.5	39	31.0	12	9.5
	방학권	43	38.7	7	6.3	22	19.8	4	3.6	8	7.2	14	12.6	1	.9	12	10.8
	창동권	20	11.2	21	11.7	33	18.4	7	3.9	11	6.1	35	19.6	19	10.6	33	18.4
	도봉권	6	7.1	15	17.9	20	23.8	3	3.6	28	33.3	2	2.4	5	6.0	5	6.0
연령대	20대	9	12.3	5	6.8	16	21.9	5	6.8	14	19.2	4	5.5	15	20.5	5	6.8
	30대	16	16.3	14	14.3	14	14.3	3	3.1	9	9.2	20	20.4	13	13.3	9	9.2
	40대	23	27.4	4	4.8	11	13.1	1	1.2	16	19.0	12	14.3	11	13.1	6	7.1
	50대	19	17.6	9	8.3	21	19.4	4	3.7	13	12.0	13	12.0	14	13.0	15	13.9
	60대	25	18.2	19	13.9	22	16.1	8	5.8	11	8.0	14	10.2	11	8.0	27	19.7
생애 주기별	청년	32	15.5	21	10.2	34	16.5	9	4.4	26	12.6	32	15.5	34	16.5	18	8.7
	중장년	49	20.5	22	9.2	40	16.7	9	3.8	29	12.1	28	11.7	27	11.3	35	14.6
	노년	11	20.0	8	14.5	10	18.2	3	5.5	8	14.5	3	5.5	3	5.5	9	16.4
은둔 수준	일반군	35	14.8	11	4.6	36	15.2	8	3.4	40	16.9	27	11.4	52	21.9	28	11.8
	위험군	57	21.7	40	15.2	48	18.3	13	4.9	23	8.7	36	13.7	12	4.6	34	12.9
계		92	18.4	51	10.2	84	16.8	21	4.2	63	12.6	63	12.6	64	12.8	62	12.4

(n=500)

- 건강 관리 측면에서 운동의 경우, 주 1~2회 한다는 응답이 33.0%(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5.6%(128명), 월 1~2회가 22.4%(112명)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노년 세대,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군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적으로는 도봉권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많았음.

[표 4-79] 건강 관리 : 운동

(n=500)

구분		안함		월 1~2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9	22.8	60	23.2	84	32.4	34	13.1	22	8.5
	여자	69	28.6	52	21.6	81	33.6	24	10.0	15	6.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6.3	52	41.3	50	39.7	10	7.9	6	4.8
	방학권	35	31.5	36	32.4	20	18.0	11	9.9	9	8.1
	창동권	49	27.4	17	9.5	78	43.6	29	16.2	6	3.4
	도봉권	36	42.9	7	8.3	17	20.2	8	9.5	16	19.0
연령대	20대	11	15.1	23	31.5	31	42.5	4	5.5	4	5.5
	30대	21	21.4	26	26.5	32	32.7	13	13.3	6	6.1
	40대	23	27.4	14	16.7	31	36.9	10	11.9	6	7.1
	50대	33	30.6	21	19.4	36	33.3	11	10.2	7	6.5
	60대	40	29.2	28	20.4	35	25.5	20	14.6	14	10.2
생애 주기별	청년	42	20.4	51	24.8	80	38.8	22	10.7	11	5.3
	중장년	68	28.5	49	20.5	77	32.2	26	10.9	19	7.9
	노년	18	32.7	12	21.8	8	14.5	10	18.2	7	12.7
은둔 수준	일반군	54	22.8	44	18.6	90	38.0	30	12.7	19	8.0
	위험군	74	28.1	68	25.9	75	28.5	28	10.6	18	6.8
계		128	25.6	112	22.4	165	33.0	58	11.6	37	7.4

- 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24.8%(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동이 하기 싫어서가 19.2%(96명),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서가 19.0%(95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0] 운동의 어려움

(n=500)

구분		삶에서		건강해서		비용의 부담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서		시간부족		운동 장소 및 시설 부재		함께 할 사람 없음		어려움 없음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3	20.5	16	6.2	10	3.9	46	17.8	35	13.5	20	7.7	10	3.9	69	26.6
	여자	43	17.8	3	1.2	27	11.2	49	20.3	21	8.7	36	14.9	7	2.9	55	22.8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0	23.8	7	5.6	7	5.6	31	24.6	10	7.9	25	19.8	1	0.8	15	11.9
	방학권	16	14.4	8	7.2	4	3.6	17	15.3	8	7.2	19	17.1	3	2.7	36	32.4
	창동권	39	21.8	4	2.2	20	11.2	32	17.9	21	11.7	9	5.0	9	5.0	45	25.1
	도봉권	11	13.1	0	0.0	6	7.1	15	17.9	17	20.2	3	3.6	4	4.8	28	33.3
연령대	20대	19	26.0	2	2.7	8	11.0	11	15.1	13	17.8	8	11.0	1	1.4	11	15.1
	30대	22	22.4	8	8.2	9	9.2	17	17.3	13	13.3	9	9.2	2	2.0	18	18.4
	40대	21	25.0	5	6.0	5	6.0	13	15.5	10	11.9	10	11.9	2	2.4	18	21.4
	50대	16	14.8	1	0.9	8	7.4	24	22.2	11	10.2	12	11.1	3	2.8	33	30.6
	60대	18	13.1	3	2.2	7	5.1	30	21.9	9	6.6	17	12.4	9	6.6	44	32.1
	청년	54	26.2	11	5.3	21	10.2	34	16.5	30	14.6	18	8.7	4	1.9	34	16.5
생애 주기별	중장년	33	13.8	8	3.3	15	6.3	48	20.1	24	10.0	30	12.6	10	4.2	71	29.7
	노년	9	16.4	0	0.0	1	1.8	13	23.6	2	3.6	8	14.5	3	5.5	19	34.5
응답 수준	일반군	52	21.9	6	2.5	13	5.5	48	20.3	31	13.1	15	6.3	5	2.1	67	28.3
	위험군	44	16.7	13	4.9	24	9.1	47	17.9	25	9.5	41	15.6	12	4.6	57	21.7
계		96	19.2	19	3.8	37	7.4	95	19.0	56	11.2	56	11.2	17	3.4	124	24.8

3. 고용 및 가구 경제

□ 응답자의 대부분(85.4%)은 고용 상태였으며, 사무·관리직 비율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이 22.8%, 자영업 14.8%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1] 직업

(n=500)

구분	사무 · 관리직		서비스 · 판매직		전문 기능직		농림어업		단순노무직		자영업		학생		구직 중		무직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89	34.4	47	18.1	26	10.0	1	0.4	16	6.2	43	16.6	3	1.2	4	1.5	28	10.8	2	0.8
	여자	74	30.7	67	27.8	17	7.1	0	0.0	11	4.6	31	12.9	2	0.8	7	2.9	29	12.0	3	1.2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8	30.2	34	27.0	10	7.9	0	0.0	8	6.3	15	11.9	0	0.0	3	2.4	16	12.7	2	1.6
	방학권	26	23.4	25	22.5	12	10.8	1	0.9	10	9.0	24	21.6	1	0.9	1	0.9	10	9.0	1	0.9
	창동권	70	39.1	49	27.4	12	6.7	0	0.0	6	3.4	17	9.5	2	1.1	4	2.2	17	9.5	2	1.1
	도봉권	29	34.5	6	7.1	9	10.7	0	0.0	3	3.6	18	21.4	2	2.4	3	3.6	14	16.7	0	0.0
연령대	20대	47	64.4	12	16.4	3	4.1	0	0.0	0	0.0	1	1.4	4	5.5	2	2.7	2	2.7	2	2.7
	30대	57	58.2	14	14.3	5	5.1	0	0.0	2	2.0	5	5.1	0	0.0	3	3.1	9	9.2	3	3.1
	40대	39	46.4	18	21.4	12	14.3	0	0.0	0	0.0	10	11.9	1	1.2	1	1.2	3	3.6	0	0.0
	50대	18	16.7	34	31.5	13	12.0	0	0.0	7	6.5	24	22.2	0	0.0	4	3.7	8	7.4	0	0.0
	60대	2	1.5	36	26.3	10	7.3	1	0.7	18	13.1	34	24.8	0	0.0	1	0.7	35	25.5	0	0.0
생애 주기별	청년	123	59.7	34	16.5	10	4.9	0	0.0	2	1.0	8	3.9	5	2.4	6	2.9	13	6.3	5	2.4
	중장년	39	16.3	72	30.1	32	13.4	1	0.4	17	7.1	50	20.9	0	0.0	5	2.1	23	9.6	0	0.0
	노년	1	1.8	8	14.5	1	1.8	0	0.0	8	14.5	16	29.1	0	0.0	0	0.0	21	38.2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75	31.6	58	24.5	19	8.0	0	0.0	9	3.8	51	21.5	2	0.8	4	1.7	14	5.9	5	2.1
	위험군	88	33.5	56	21.3	24	9.1	1	0.4	18	6.8	23	8.7	3	1.1	7	2.7	43	16.3	0	0.0
	계	163	32.6	114	22.8	43	8.6	1	0.2	27	5.4	74	14.8	5	1.0	11	2.2	57	11.4	5	1.0

□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들의 고용 형태 역시 정규직 비율이 68.6%(293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0.5%(45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2] 고용형태*

(n=427)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51	67.4	14	6.3	3	1.3	2	0.9	9	4.0	21	9.4	23	10.3	1	0.4
	여자	142	70.0	15	7.4	6	3.0	1	0.5	9	4.4	8	3.9	22	10.8	0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2	76.6	3	2.8	4	3.7	0	0.0	4	3.7	9	8.4	5	4.7	0	0.0
	방학권	56	56.6	13	13.1	2	2.0	2	2.0	1	1.0	2	2.0	23	23.2	0	0.0
	창동권	121	77.6	9	5.8	0	0.0	1	0.6	7	4.5	2	1.3	15	9.6	1	0.6
	도봉권	34	52.3	4	6.2	3	4.6	0	0.0	6	9.2	16	24.6	2	3.1	0	0.0
연령대	20대	57	87.7	3	4.6	1	1.5	0	0.0	3	4.6	1	1.5	0	0.0	0	0.0
	30대	71	82.6	5	5.8	0	0.0	0	0.0	5	5.8	0	0.0	4	4.7	1	1.2
	40대	64	81.0	1	1.3	0	0.0	0	0.0	4	5.1	2	2.5	8	10.1	0	0.0
	50대	58	60.4	6	6.3	6	6.3	0	0.0	3	3.1	12	12.5	11	11.5	0	0.0
생애 주기별	60대	43	42.6	14	13.9	2	2.0	3	3.0	3	3.0	14	13.9	22	21.8	0	0.0
	청년	155	85.2	9	4.9	1	0.5	0	0.0	9	4.9	1	0.5	6	3.3	1	0.5
	중장년	128	60.7	14	6.6	7	3.3	3	1.4	9	4.3	18	8.5	32	15.2	0	0.0
	노년	10	29.4	6	17.6	1	2.9	0	0.0	0	0.0	10	29.4	7	20.6	0	0.0
은둔 수준	일반군	134	61.8	14	6.5	2	0.9	1	0.5	14	6.5	26	12.0	25	11.5	1	0.5
	위험군	159	75.7	15	7.1	7	3.3	2	1.0	4	1.9	3	1.4	20	9.5	0	0.0
계		293	68.6	29	6.8	9	2.1	3	0.7	18	4.2	29	6.8	45	10.5	1	0.2

*학생, 구직 중, 무직, 전업주부, 기타 응답 제외

□ 근로를 하지 않는 72명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가 24.7%,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이 없다는 응답이 20.5%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3] 일을 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이 없어서	구직 등 취업 준비 중	경력에 맞는 일거리 없어서	공적 부조 수급 때문에	진학, 취업, 창업, 자격증 준비 중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인간관 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근처 (주변) 일이 없어서	정년 퇴직 및 은퇴를 합	학생 이어서	가족 돌봄, 가사 활동 때문에
		%	%	%	%	%	%	%	%	%	%	%	%	%	%
성별	남자	45.7	20.0	8.6	22.9	8.6	11.4	5.7	5.7	5.7	0.0	0.0	8.6	8.6	0.0
	여자	50.0	28.9	31.6	15.8	26.3	21.1	21.1	13.2	10.5	13.2	7.9	0.0	0.0	5.3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7.9	26.3	15.8	15.8	15.8	10.5	21.1	10.5	0.0	10.5	0.0	0.0	0.0	0.0
	방학권	50.0	0.0	25.0	33.3	16.7	8.3	16.7	16.7	16.7	0.0	8.3	0.0	0.0	0.0
	창동권	47.8	17.4	26.1	21.7	21.7	8.7	13.0	13.0	17.4	13.0	8.7	8.7	8.7	8.7
	도봉권	36.8	47.4	15.8	10.5	15.8	36.8	5.3	0.0	0.0	0.0	0.0	5.3	5.3	0.0
연령대	20대	12.5	0.0	37.5	50.0	25.0	25.0	37.5	25.0	37.5	12.5	25.0	0.0	37.5	12.5
	30대	41.7	8.3	50.0	33.3	33.3	16.7	33.3	16.7	16.7	25.0	8.3	0.0	0.0	8.3
	40대	40.0	40.0	40.0	40.0	40.0	0.0	60.0	0.0	0.0	20.0	0.0	0.0	0.0	0.0
	50대	66.7	16.7	25.0	16.7	16.7	0.0	0.0	0.0	8.3	0.0	0.0	0.0	0.0	0.0
	60대	52.8	36.1	2.8	5.6	8.3	22.2	0.0	8.3	0.0	0.0	0.0	8.3	0.0	0.0
	청년	29.2	8.3	41.7	41.7	29.2	16.7	37.5	16.7	20.8	16.7	12.5	0.0	12.5	8.3
생애 주기별	중장년	71.4	21.4	14.3	10.7	14.3	7.1	3.6	3.6	3.6	3.6	0.0	0.0	0.0	0.0
	노년	38.1	47.6	4.8	4.8	9.5	28.6	0.0	9.5	0.0	0.0	0.0	14.3	0.0	0.0
은둔 수준	일반군	25.0	0.0	25.0	25.0	35.0	10.0	15.0	25.0	5.0	0.0	5.0	5.0	5.0	0.0
	위험군	56.6	34.0	18.9	17.0	11.3	18.9	13.2	3.8	9.4	9.4	3.8	3.8	3.8	3.8
	계	47.9	24.7	20.5	19.2	17.8	16.4	13.7	9.6	8.2	6.8	4.1	4.1	4.1	2.7

□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본인의 수입이 6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본인이 모아둔 돈이 18.4%로 나타나 생활비의 대부분은 본인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4-84] 생활비 마련 방법 : 1순위

(n=500)

구분	본인이 버는 돈	본인이 모아둔 돈	부모님의 지원	배우자·연인의 수입	형제자매·친척의 지원	금융이자 및 임대소득	공적부조 (취약계층 정부지원)	개인연금 (퇴직금)	국가연금 (국민연금 등)	은행, 카드 대출	
	%	%	%	%	%	%	%	%	%	%	
성별	남자	66.4	15.1	4.2	0.0	0.4	0.8	8.5	0.4	1.2	3.1
	여자	68.5	22.0	0.8	0.8	0.0	0.4	5.0	0.0	0.8	1.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2.2	16.7	1.6	0.0	0.0	0.0	8.7	0.0	0.8	0.0
	방학권	49.5	38.7	5.4	0.9	0.0	0.9	3.6	0.0	0.9	0.0
	창동권	68.7	15.1	2.2	0.6	0.6	0.6	5.0	0.6	0.0	6.7
	도봉권	81.0	1.2	1.2	0.0	0.0	1.2	11.9	0.0	3.6	0.0
연령대	20대	76.7	15.1	5.5	0.0	1.4	1.4	0.0	0.0	0.0	0.0
	30대	74.5	16.3	4.1	1.0	0.0	1.0	1.0	0.0	0.0	2.0
	40대	76.2	14.3	2.4	0.0	0.0	1.2	3.6	0.0	0.0	2.4
	50대	70.4	19.4	0.9	0.0	0.0	0.0	4.6	0.0	0.0	4.6
생애 주기별	60대	49.6	23.4	1.5	0.7	0.0	0.0	18.2	0.7	3.6	2.2
	청년	75.7	15.5	3.9	0.5	0.5	1.0	1.5	0.0	0.0	1.5
	중장년	64.9	20.5	2.1	0.4	0.0	0.4	7.1	0.0	0.8	3.8
은둔 수준	노년	47.3	20.0	0.0	0.0	0.0	0.0	25.5	1.8	5.5	0.0
	일반군	76.8	18.1	1.7	0.4	0.0	0.0	2.5	0.0	0.0	0.4
	위험군	58.9	18.6	3.4	0.4	0.4	1.1	10.6	0.4	1.9	4.2
	계	67.4	18.4	2.6	0.4	0.2	0.6	6.8	0.2	1.0	2.4

□ 지난 3개월간 가장 소비 지출이 컸던 항목은 식료품비가 3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거비가 28.2%로 나타남.

[표 4-85] 지출이 가장 큰 항목 : 1순위

구분		식료품비	보건 의료비	외식비	교통· 통신비	의류비	경조사비	관리비	주거비	문화 여가비	비동거 가족 지원	기타
		%	%	%	%	%	%	%	%	%	%	%
성별	남자	39.8	2.7	8.5	5.8	1.5	2.3	4.6	28.6	0.0	5.0	1.2
	여자	34.9	5.4	7.9	7.9	3.3	0.4	8.7	27.8	2.1	1.7	0.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8.4	4.0	6.3	6.3	0.8	0.0	13.5	18.3	0.8	0.8	0.8
	방학권	49.5	4.5	12.6	6.3	3.6	5.4	3.6	14.4	0.0	0.0	0.0
	창동권	30.7	5.0	8.4	6.1	1.7	0.0	5.6	39.1	2.2	0.0	1.1
	도봉권	19.0	1.2	4.8	9.5	4.8	1.2	2.4	38.1	0.0	19.0	0.0
	20대	49.3	0.0	12.3	4.1	2.7	0.0	4.1	27.4	0.0	0.0	0.0
연령대	30대	36.7	1.0	8.2	6.1	4.1	1.0	2.0	36.7	3.1	1.0	0.0
	40대	39.3	2.4	6.0	7.1	1.2	1.2	8.3	28.6	0.0	6.0	0.0
	50대	32.4	7.4	9.3	2.8	2.8	1.9	5.6	32.4	0.9	3.7	0.9
	60대	34.3	6.6	6.6	11.7	1.5	2.2	10.9	19.0	0.7	5.1	1.5
	청년	41.7	1.0	9.7	6.3	2.9	0.5	3.9	32.0	1.5	0.5	0.0
생애 주기별	중장년	33.9	6.3	7.1	5.4	2.1	2.1	8.4	28.5	0.8	4.6	0.8
	노년	36.4	5.5	7.3	14.5	1.8	1.8	9.1	12.7	0.0	9.1	1.8
은둔 수준	일반군	31.2	4.2	11.4	3.8	3.8	2.1	11.0	24.9	0.8	6.3	0.4
	위험군	43.0	3.8	5.3	9.5	1.1	0.8	2.7	31.2	1.1	0.8	0.8
계		37.4	4.0	8.2	6.8	2.4	1.4	6.6	28.2	1.0	3.4	0.6

□ 응답자의 21.0%(105명)은 현재 저축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의 20% 이상~30% 미만을 저축한다는 응답이 25.6%(128명)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의 10% 미만을 저축한다는 응답이 18.2%(91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6] 저축 여부/ 저축 비중

(n=500)

구분		안 한다 /못 한다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52	20.1	52	20.1	50	19.3	60	23.2	22	8.5	23	8.9
	여자	53	22.0	39	16.2	34	14.1	68	28.2	17	7.1	30	12.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19	15.1	7	5.6	9	7.1	32	25.4	23	18.3	36	28.6
	방학권	10	9.0	14	12.6	23	20.7	59	53.2	4	3.6	1	0.9
	창동권	45	25.1	60	33.5	40	22.3	13	7.3	7	3.9	14	7.8
	도봉권	31	36.9	10	11.9	12	14.3	24	28.6	5	6.0	2	2.4
연령대	20대	11	15.1	10	13.7	15	20.5	17	23.3	13	17.8	7	9.6
	30대	22	22.4	22	22.4	14	14.3	23	23.5	9	9.2	8	8.2
	40대	12	14.3	19	22.6	13	15.5	23	27.4	7	8.3	10	11.9
	50대	21	19.4	20	18.5	21	19.4	30	27.8	5	4.6	11	10.2
	60대	39	28.5	20	14.6	21	15.3	35	25.5	5	3.6	17	12.4
생애 주기별	청년	40	19.4	44	21.4	34	16.5	43	20.9	26	12.6	19	9.2
	중장년	45	18.8	42	17.6	41	17.2	72	30.1	10	4.2	29	12.1
	노년	20	36.4	5	9.1	9	16.4	13	23.6	3	5.5	5	9.1
은둔 수준	일반군	27	11.4	28	11.8	29	12.2	70	29.5	32	13.5	51	21.5
	위험군	78	29.7	63	24.0	55	20.9	58	22.1	7	2.7	2	0.8
계		105	21.0	91	18.2	84	16.8	128	25.6	39	7.8	53	10.6

- 응답자의 54.6%(273명)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창동권, 도봉권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컸고,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위험 집단의 경제적 불안 인식이 높았음.

[표 4-87]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

(n=500)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어려움		매우 어려움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	0.4	120	46.3	120	46.3	18	6.9	2.40
	여자	1	0.4	105	43.6	112	46.5	23	9.5	2.35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0	0.0	68	54.0	50	39.7	8	6.3	2.48
	방학권	0	0.0	66	59.5	42	37.8	3	2.7	2.57
	창동권	0	0.0	61	34.1	103	57.5	15	8.4	2.26
	도봉권	2	2.4	30	35.7	37	44.0	15	17.9	2.23
연령대	20대	0	0.0	36	49.3	35	47.9	2	2.7	2.47
	30대	1	1.0	39	39.8	51	52.0	7	7.1	2.35
	40대	0	0.0	38	45.2	43	51.2	3	3.6	2.42
	50대	1	0.9	48	44.4	51	47.2	8	7.4	2.39
	60대	0	0.0	64	46.7	52	38.0	21	15.3	2.31
생애 주기별	청년	1	0.5	89	43.2	106	51.5	10	4.9	2.39
	중장년	1	0.4	110	46.0	107	44.8	21	8.8	2.38
	노년	0	0.0	26	47.3	19	34.5	10	18.2	2.29
은둔 수준	일반군	2	0.8	124	52.3	103	43.5	8	3.4	2.51
	위험군	0	0.0	101	38.4	129	49.0	33	12.5	2.26
계		2	0.4	225	45.0	232	46.4	41	8.2	2.38

□ 전체 응답자 중 44.2%가 빗(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채의 이유로는 주택마련이 17.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청년 세대의 주택 마련 비용 비중이 높았음. 반면, 노년 세대의 경우는 생계비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4-88] 부채(빚) 여부/ 부채 이유

(n=500)

구분	빚(부채) 없음	생계비		교육비		비동거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원	주택마련 비용		의료비		재테크 자금 마련		사업자금 마련		기타	
		%	%	%	%		%	%	%	%	%	%	%	%	%	%
성별	남자	54.4	6.9	0.8	5.4	13.9	0.4	11.2	3.9	3.1						
	여자	57.3	8.7	2.5	1.7	22.0	0.0	5.0	2.5	0.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1.0	1.6	0.8	0.8	12.7	0.0	0.0	1.6	1.6						
	방학권	73.9	5.4	0.0	0.0	10.8	0.9	0.9	7.2	0.9						
	창동권	39.1	5.0	3.4	4.5	27.4	0.0	17.9	0.0	2.8						
	도봉권	29.8	26.2	1.2	10.7	14.3	0.0	9.5	7.1	1.2						
연령대	20대	69.9	4.1	2.7	1.4	20.5	0.0	0.0	1.4	0.0						
	30대	44.9	9.2	3.1	7.1	27.6	0.0	7.1	1.0	0.0						
	40대	51.2	7.1	1.2	3.6	20.2	0.0	13.1	3.6	0.0						
	50대	50.9	6.5	0.9	4.6	16.7	0.0	10.2	5.6	4.6						
	60대	62.8	10.2	0.7	1.5	8.8	0.7	8.8	3.6	2.9						
생애 주기별	청년	53.9	6.8	2.9	4.4	24.8	0.0	6.3	1.0	0.0						
	중장년	56.9	6.3	0.8	3.3	13.8	0.4	10.5	4.6	3.3						
	노년	58.2	18.2	0.0	1.8	9.1	0.0	5.5	5.5	1.8						
은둔 수준	일반군	62.4	3.8	1.7	2.5	18.1	0.0	5.1	5.9	0.4						
	위험군	49.8	11.4	1.5	4.6	17.5	0.4	11.0	0.8	3.0						
	계	55.8	7.8	1.6	3.6	17.8	0.2	8.2	3.2	1.8						

- 전반적인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4%(267명)가 본인을 하층이라 인식하고 있었으며, 46.6%(233명)은 중상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9] 전반적인 생활 수준 정도*

(n=500)

구분		최하층		하층		중간층		상층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8	6.9	129	49.8	105	40.5	7	2.7	2.39
	여자	17	7.1	103	42.7	118	49.0	3	1.2	2.4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8	6.3	56	44.4	61	48.4	1	0.8	2.44
	방학권	5	4.5	51	45.9	52	46.8	3	2.7	2.48
	창동권	11	6.1	92	51.4	75	41.9	1	0.6	2.37
	도봉권	11	13.1	33	39.3	35	41.7	5	6.0	2.40
연령대	20대	1	1.4	41	56.2	31	42.5	0	0.0	2.41
	30대	3	3.1	54	55.1	41	41.8	0	0.0	2.39
	40대	2	2.4	45	53.6	36	42.9	1	1.2	2.43
	50대	5	4.6	46	42.6	54	50.0	3	2.8	2.51
	60대	24	17.5	46	33.6	61	44.5	6	4.4	2.36
생애 주기별	청년	5	2.4	116	56.3	85	41.3	0	0.0	2.39
	중장년	18	7.5	99	41.4	115	48.1	7	2.9	2.46
	노년	12	21.8	17	30.9	23	41.8	3	5.5	2.31
은둔 수준	일반군	4	1.7	79	33.3	147	62.0	7	3.0	2.66
	위험군	31	11.8	153	58.2	76	28.9	3	1.1	2.19
계		35	7.0	232	46.4	223	44.6	10	2.0	2.42

*최상층에 대한 응답은 없었음

4. 주거 및 안전

- 주택 및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매우 불안전(1점)’ ~ ‘매우 안전(4점)’의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주거 환경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의 보안, 주변 지역의 청결성, 주변 지역의 시설 안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항목들에 비해 주거공간의 소음 등의 사생활 침해, 주변 지역의 범죄(성폭력, 강도, 상해 등)로부터의 안전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세부적으로, 먼저 방범창, 잠금장치 등 주택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7.8%(389명)으로 나타남.

[표 4-90]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n=500)

구분		주택 보안	사생활 침해	화재 안전	주택 위생	도움 요청	범죄 안전	시설 안전	청결성
성별	남자	2.89	2.64	2.72	2.74	2.76	2.73	2.92	2.89
	여자	2.74	2.54	2.57	2.70	2.61	2.49	2.70	2.7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87	2.63	2.67	2.78	2.81	2.58	2.94	3.03
	방학권	2.79	2.52	2.71	2.69	2.62	2.60	2.70	2.75
	창동권	2.74	2.57	2.63	2.63	2.63	2.64	2.71	2.72
	도봉권	2.92	2.65	2.58	2.87	2.70	2.60	2.99	2.94
연령대	20대	2.78	2.55	2.59	2.67	2.71	2.41	2.82	2.86
	30대	2.71	2.49	2.52	2.61	2.56	2.51	2.69	2.70
	40대	2.89	2.77	2.75	2.83	2.75	2.73	2.89	2.92
	50대	2.81	2.54	2.67	2.67	2.63	2.67	2.80	2.76
	60대	2.87	2.61	2.70	2.80	2.77	2.67	2.86	2.95
생애 주기별	청년	2.76	2.56	2.57	2.66	2.63	2.51	2.74	2.79
	중장년	2.85	2.62	2.73	2.75	2.73	2.70	2.84	2.86
	노년	2.87	2.56	2.60	2.80	2.73	2.60	2.98	2.96
은둔 수준	일반군	2.92	2.64	2.65	2.88	2.83	2.61	2.96	3.01
	위험군	2.73	2.54	2.65	2.57	2.56	2.61	2.68	2.69
계		2.82	2.59	2.65	2.72	2.69	2.61	2.81	2.84

[표 4-91]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 주택 보안 문제

(n=500)

구분		매우 불안전		불안전		안전		매우 안전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1	0.4	40	15.4	205	79.2	13	5.0	2.89
	여자	6	2.5	64	26.6	158	65.6	13	5.4	2.7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	1.6	20	15.9	96	76.2	8	6.3	2.87
	방학권	0	0.0	25	22.5	84	75.7	2	1.8	2.79
	창동권	5	2.8	43	24.0	124	69.3	7	3.9	2.74
	도봉권	0	0.0	16	19.0	59	70.2	9	10.7	2.92
연령대	20대	1	1.4	18	24.7	50	68.5	4	5.5	2.78
	30대	3	3.1	26	26.5	65	66.3	4	4.1	2.71
	40대	0	0.0	13	15.5	67	79.8	4	4.8	2.89
	50대	2	1.9	24	22.2	75	69.4	7	6.5	2.81
	60대	1	0.7	23	16.8	106	77.4	7	5.1	2.87
생애 주기별	청년	4	1.9	50	24.3	143	69.4	9	4.4	2.76
	중장년	3	1.3	45	18.8	176	73.6	15	6.3	2.85
	노년	0	0.0	9	16.4	44	80.0	2	3.6	2.87
은둔 수준	일반군	1	0.4	39	16.5	176	74.3	21	8.9	2.92
	위험군	6	2.3	65	24.7	187	71.1	5	1.9	2.73
계		7	1.4	104	20.8	363	72.6	26	5.2	2.82

□ 주거공간의 소음 등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과반 이상(54.4%, 272명)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여성과 20-30대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 비중이 높았음.

[표 4-92]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 사생활 침해

(n=500)

구분		매우 불안전		불안전		안전		매우 안전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6	2.3	102	39.4	131	50.6	20	7.7	2.64
	여자	13	5.4	107	44.4	100	41.5	21	8.7	2.54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	2.4	45	35.7	74	58.7	4	3.2	2.63
	방학권	6	5.4	53	47.7	40	36.0	12	10.8	2.52
	창동권	9	5.0	74	41.3	81	45.3	15	8.4	2.57
	도봉권	1	1.2	37	44.0	36	42.9	10	11.9	2.65
연령대	20대	3	4.1	33	45.2	31	42.5	6	8.2	2.55
	30대	5	5.1	45	45.9	43	43.9	5	5.1	2.49
	40대	3	3.6	23	27.4	48	57.1	10	11.9	2.77
	50대	4	3.7	49	45.4	48	44.4	7	6.5	2.54
	60대	4	2.9	59	43.1	61	44.5	13	9.5	2.61
생애 주기별	청년	10	4.9	86	41.7	94	45.6	16	7.8	2.56
	중장년	7	2.9	100	41.8	110	46.0	22	9.2	2.62
	노년	2	3.6	23	41.8	27	49.1	3	5.5	2.56
은둔 수준	일반군	6	2.5	100	42.2	105	44.3	26	11.0	2.64
	위험군	13	4.9	109	41.4	126	47.9	15	5.7	2.54
계		19	3.8	209	41.8	231	46.2	41	8.2	2.59

□ 화재예방 및 대피시설 마련 등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는 64.4%(322명)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3]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 화재로부터의 안전

(n=500)

구분		매우 불안전		불안전		안전		매우 안전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6	2.3	75	29.0	163	62.9	15	5.8	2.72
	여자	16	6.6	81	33.6	134	55.6	10	4.1	2.57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3.2	37	29.4	81	64.3	4	3.2	2.67
	방학권	5	4.5	24	21.6	80	72.1	2	1.8	2.71
	창동권	11	6.1	60	33.5	93	52.0	15	8.4	2.63
	도봉권	2	2.4	35	41.7	43	51.2	4	4.8	2.58
연령대	20대	4	5.5	27	37.0	37	50.7	5	6.8	2.59
	30대	6	6.1	37	37.8	53	54.1	2	2.0	2.52
	40대	3	3.6	24	28.6	48	57.1	9	10.7	2.75
	50대	4	3.7	32	29.6	68	63.0	4	3.7	2.67
	60대	5	3.6	36	26.3	91	66.4	5	3.6	2.70
생애 주기별	청년	12	5.8	76	36.9	107	51.9	11	5.3	2.57
	중장년	7	2.9	63	26.4	156	65.3	13	5.4	2.73
	노년	3	5.5	17	30.9	34	61.8	1	1.8	2.60
은둔 수준	일반군	10	4.2	74	31.2	141	59.5	12	5.1	2.65
	위험군	12	4.6	82	31.2	156	59.3	13	4.9	2.65
계		22	4.4	156	31.2	297	59.4	25	5.0	2.65

- 습기, 곰팡이, 악취, 벌레 등 주택의 위생상태로 살펴본 거주지역의 안전 수준은 응답자의 64.0%(320명)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지역적으로는 창동권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94]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 주택의 위생 상태

(n=500)

구분		매우 불안전		불안전		안전		매우 안전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4	1.5	81	31.3	152	58.7	22	8.5	2.74
	여자	11	4.6	84	34.9	113	46.9	33	13.7	2.7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5	4.0	35	27.8	69	54.8	17	13.5	2.78
	방학권	1	.9	38	34.2	66	59.5	6	5.4	2.69
	창동권	8	4.5	74	41.3	74	41.3	23	12.8	2.63
	도봉권	1	1.2	18	21.4	56	66.7	9	10.7	2.87
연령대	20대	5	6.8	21	28.8	40	54.8	7	9.6	2.67
	30대	4	4.1	36	36.7	52	53.1	6	6.1	2.61
	40대	2	2.4	22	26.2	48	57.1	12	14.3	2.83
	50대	2	1.9	39	36.1	60	55.6	7	6.5	2.67
	60대	2	1.5	47	34.3	65	47.4	23	16.8	2.80
생애 주기별	청년	10	4.9	68	33.0	110	53.4	18	8.7	2.66
	중장년	5	2.1	78	32.6	127	53.1	29	12.1	2.75
	노년	0	0.0	19	34.5	28	50.9	8	14.5	2.80
은둔 수준	일반군	4	1.7	56	23.6	141	59.5	36	15.2	2.88
	위험군	11	4.2	109	41.4	124	47.1	19	7.2	2.57
계		15	3.0	165	33.0	265	53.0	55	11.0	2.72

- 긴급상황 시 도움 요청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5]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 긴급 상황 시 도움 요청

(n=500)

구분		매우 불안전		불안전		안전		매우 안전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6	2.3	69	26.6	165	63.7	19	7.3	2.76
	여자	16	6.6	86	35.7	116	48.1	23	9.5	2.61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7	5.6	23	18.3	83	65.9	13	10.3	2.81
	방학권	5	4.5	38	34.2	62	55.9	6	5.4	2.62
	창동권	8	4.5	68	38.0	85	47.5	18	10.1	2.63
	도봉권	2	2.4	26	31.0	51	60.7	5	6.0	2.70
연령대	20대	3	4.1	23	31.5	39	53.4	8	11.0	2.71
	30대	6	6.1	36	36.7	51	52.0	5	5.1	2.56
	40대	3	3.6	21	25.0	54	64.3	6	7.1	2.75
	50대	5	4.6	35	32.4	63	58.3	5	4.6	2.63
	60대	5	3.6	40	29.2	74	54.0	18	13.1	2.77
생애 주기별	청년	11	5.3	69	33.5	112	54.4	14	6.8	2.63
	중장년	9	3.8	69	28.9	139	58.2	22	9.2	2.73
	노년	2	3.6	17	30.9	30	54.5	6	10.9	2.73
은둔 수준	일반군	7	3.0	56	23.6	145	61.2	29	12.2	2.83
	위험군	15	5.7	99	37.6	136	51.7	13	4.9	2.56
계		22	4.4	155	31.0	281	56.2	42	8.4	2.69

- 주변 지역의 범죄(성폭력, 강도, 상해 등)로부터의 안전의 경우는 타 영역에 비해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여성, 20-30대 연령에서 불안함의 비율이 높았음.

[표 4-96]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 범죄로부터 안전

(n=500)

구분		매우 불안전		불안전		안전		매우 안전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	.8	84	32.4	156	60.2	17	6.6	2.73
	여자	16	6.6	101	41.9	115	47.7	9	3.7	2.4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4	3.2	47	37.3	73	57.9	2	1.6	2.58
	방학권	5	4.5	38	34.2	64	57.7	4	3.6	2.60
	창동권	9	5.0	61	34.1	94	52.5	15	8.4	2.64
	도봉권	0	0.0	39	46.4	40	47.6	5	6.0	2.60
연령대	20대	7	9.6	30	41.1	35	47.9	1	1.4	2.41
	30대	2	2.0	47	48.0	46	46.9	3	3.1	2.51
	40대	2	2.4	27	32.1	47	56.0	8	9.5	2.73
	50대	2	1.9	37	34.3	64	59.3	5	4.6	2.67
	60대	5	3.6	44	32.1	79	57.7	9	6.6	2.67
생애 주기별	청년	10	4.9	91	44.2	95	46.1	10	4.9	2.51
	중장년	7	2.9	73	30.5	144	60.3	15	6.3	2.70
	노년	1	1.8	21	38.2	32	58.2	1	1.8	2.60
은둔 수준	일반군	6	2.5	93	39.2	126	53.2	12	5.1	2.61
	위험군	12	4.6	92	35.0	145	55.1	14	5.3	2.61
계		18	3.6	185	37.0	271	54.2	26	5.2	2.61

- 현 거주지역의 CCTV, 가로등 설치 등의 시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72.8%(364명)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4-97]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 시설 안전

(n=500)

구분		매우 불안전		불안전		안전		매우 안전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2	0.8	48	18.5	178	68.7	31	12.0	2.92
	여자	8	3.3	78	32.4	133	55.2	22	9.1	2.70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2	1.6	25	19.8	77	61.1	22	17.5	2.94
	방학권	2	1.8	32	28.8	74	66.7	3	2.7	2.70
	창동권	6	3.4	58	32.4	97	54.2	18	10.1	2.71
	도봉권	0	0.0	11	13.1	63	75.0	10	11.9	2.99
연령대	20대	0	0.0	22	30.1	42	57.5	9	12.3	2.82
	30대	2	2.0	32	32.7	58	59.2	6	6.1	2.69
	40대	4	4.8	13	15.5	55	65.5	12	14.3	2.89
	50대	4	3.7	25	23.1	68	63.0	11	10.2	2.80
	60대	0	0.0	34	24.8	88	64.2	15	10.9	2.86
생애 주기별	청년	5	2.4	62	30.1	120	58.3	19	9.2	2.74
	중장년	5	2.1	55	23.0	153	64.0	26	10.9	2.84
	노년	0	0.0	9	16.4	38	69.1	8	14.5	2.98
은둔 수준	일반군	3	1.3	49	20.7	140	59.1	45	19.0	2.96
	위험군	7	2.7	77	29.3	171	65.0	8	3.0	2.68
계		10	2.0	126	25.2	311	62.2	53	10.6	2.81

□ 주변 지역의 분리수거, 쓰레기 등 청결성 정도에 대해서는 75.6%(378명)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 지역 환경에 대한 청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4-98]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 정도 : 청결성 정도

(n=500)

구분		매우 불안전		불안전		안전		매우 안전		평균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3	1.2	50	19.3	178	68.7	28	10.8	2.89
	여자	8	3.3	61	25.3	146	60.6	26	10.8	2.79
거주지 권역별	쌍문권	3	2.4	18	14.3	77	61.1	28	22.2	3.03
	방학권	2	1.8	28	25.2	77	69.4	4	3.6	2.75
	창동권	6	3.4	54	30.2	103	57.5	16	8.9	2.72
	도봉권	0	0.0	11	13.1	67	79.8	6	7.1	2.94
연령대	20대	1	1.4	16	21.9	48	65.8	8	11.0	2.86
	30대	6	6.1	25	25.5	59	60.2	8	8.2	2.70
	40대	2	2.4	13	15.5	59	70.2	10	11.9	2.92
	50대	2	1.9	32	29.6	64	59.3	10	9.3	2.76
	60대	0	0.0	25	18.2	94	68.6	18	13.1	2.95
생애 주기별	청년	8	3.9	47	22.8	131	63.6	20	9.7	2.79
	중장년	3	1.3	54	22.6	156	65.3	26	10.9	2.86
	노년	0	0.0	10	18.2	37	67.3	8	14.5	2.96
은둔 수준	일반군	4	1.7	36	15.2	151	63.7	46	19.4	3.01
	위험군	7	2.7	75	28.5	173	65.8	8	3.0	2.69
계		11	2.2	111	22.2	324	64.8	54	10.8	2.84